

KOTRA 국가정보

오스트리아

I .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오스트리아 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Austria)
면적	83,878 km ² (자료원 : 오스트리아 통계청(이민청 내 표기), 21년 1월 기준(21년 12월 기준 최신자료))
수도	빈(Wien, 영문 Vienna)
민족(인종)	게르만족 (오스트리아계(73.0%), 슬라브계(8.2%), 터키계(2.5%), 독일계(2.3%), 기타(14.0%))
언어	독일어
종교	가톨릭(57.2%), 동방정교회(8.8%), 이슬람(7.9%), 개신교(3.3%), 무교 및 기타(22.8%)
기후	◦ 동부: 대륙성 기후 영향으로, 여름은 덥고 겨울에는 눈이 적은 편이다. ◦ 서부: 편향상이 자주 일어나며,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온다. ◦ 남부: 일조량이 많고, 알프스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며 강수량도 많다.
국가원수	대통령 :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총리 : 칼 네하머(Karl Nehammer)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92-06-23 (자료원 : 오스트리아 외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71-10-30	무역협정	
섬유협정	1979-06-06	섬유협정	
사증면제협정	1979-06-24	사증면제협정	
항공협정	1979-07-03	항공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1987-12-01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1991-03-14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2007-09-15	과학기술협력협정	
사회보장협정	2010-10-05	사회보장협정	
워킹홀리데이	2012-09-17	워킹홀리데이	
산림기술교류협약	2012-10-20	산림기술교류협약 양해각서 체결	

한국교민 수

2,550 명 (자료원 :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세바스티안 쿠어츠 전 오스트리아 총리의 요청으로 2020년 4월 28일 오후 5시(한국 시각)부터 30분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국 간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 쿠어츠 전 총리는 “문 대통령과 통화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우선 한국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점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가인데, 한국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응했는지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었으나 집중적인 검진과 추적, 철저한 역학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최근에는 하루 열 명 안팎으로 확진 자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에 기초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답했다.

○ 쿠어츠 전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이른 시일 내에 확진자 숫자를 낮춘 게 특히 인상적이었다”면서 “오스트리아는 폐쇄했던 식당이나 상점을 다시 열 계획인데, 2차 팬데믹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2차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방역을 철저하게 유지하여 일정한 숫자 이하로 확진자를 잘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아울러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통한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방역 경험과 임상 데이터 공유, 방역 및 의약품 공급,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노력, 필수 인원 교류 보장 등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이 필수 인원 교류 보장을 언급하자, 쿠어츠 전 총리는 “오스트리아는 여행에 관한 경보를 조만간 종료할 예정”이라며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한국 간 항공편 직항 노선 재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교류가 지속되어야 하는 데 이러한 측면에서 쿠어츠 전 총리의 직항 재개 조치가 의미가 있다”며 사의를 표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견을 교환한 뒤 문 대통령은 핵 비확산 선도국인 오스트리아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

-자료원: KTV국민방송 인터뷰-

○ 세바스티안 쿠어츠 전 총리는 2020년 6월 4일(목) 현지 방송 Servus TV와의 인터뷰(Talk Bundeskanzler)에서, 오스트리아보다 앞서 코로나19를 겪은 한국 등 국가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현 위기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빠르게 대응할수록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 도움되었다고 밝혔다.

- 자료원: 오스트리아 Servus TV-

○ 오스트리아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2021년 6월 14~15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했다. 이는 1892년 양국의 국교 수교 이후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으로, 지난 129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시켜온 양국의 외교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주요 매체에 보도됐다. 2020년 4월 있었던 문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쿠어츠 전 총리의 코로나19 공동 대처 협의 및 정보 교환을 통한 코로나 위기 협력, 2020년 8월 쿠어츠 전 총리가 한국을 코로나 극복 모범사례로 지목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희망을 피력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빈에서 판 데어 벨렌 대통령, 쿠어츠 전 총리, 루드비히 빈 시장 및 소보트카 연방하원의장과 회담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자 간 문화협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약 제2개정서의 체결이 이루어졌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ORF, 일간지 Die Presse-

경제

○ 2018년 11월 1일부터 3일, 3일간 오스트리아 디지털경제부 Margarete Schramboeck 장관이 방한하여 한-오 경제교류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일정을 소화했다. 첫날에는 KOTRA 본사를 방문하여 권평오 사장과 면담을 하며 한-오 스타트업

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KOTRA 스타트업지원팀에서 개최한 피칭대회에서 최우수 스타트업 파이퀀트사에 오스트리아에서 진행되는 Go Austria에 참가할 수 있는 Golden Ticket을 부여했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스타트업의 아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Go Asia 사업의 확대를 위해 강남에 소재하는 스타트업 지원기관 D.Camp와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오스트리아 스타트업 8개사가 Go Seoul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 2019년 7월 17일 비엔나에서는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행사(EKC,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최우선 정책을 소개하고 재유럽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성과를 치하하며,

한-유럽 간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김명자 회장, 과기정통부 송경희 국제협력관,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원장,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 등 많은 정부,

학계, 연구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유럽지역 과학자들 700여 명이 참여하여서 한-유럽 과학기술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의 기회가 되었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디지털경제부-

o 2021년 6월 14일 있었던 문 대통령과 오스트리아 판 데어 벨렌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4차 산업 시대 새로운 협력 관계의 모색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양 정상은 과학기술, 5G 등의 미래형 첨단산업 분야에서 오스트리아가 보유한 기초과학 기술력과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상용화·산업화 능력을 접목시키는 파트너십 구축에 동의했다. 또한 상호 호환성이 높은 양국 정부의 그린 이니셔티브인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 - 오스트리아의 2040 기후중립목표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디지털경제부-

문화

o 2019년 9월 23일~27일의 총 5일간 비엔나 1구 소재 Burgkino(약 250석)에서 오스트리아 한국영화주간(Koreanische Filmwoche)이 개최되었다. 이번 영화제에는 개막작(23일) '리틀포레스트'를 시작으로 '스윙키즈', '증인', '아가씨', '완벽한 타인'까지 총 5편의 한국영화가 매일 1회씩 상영되었다. 매회 평균 100여 명의 관객이 상영관을 찾았으며, K-Pop과 더불어 K-Movie를 향한 높아지는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o 2020년에도 12월 3일~6일의 총 4일간 '한국 여성의 한 세기'라는 주제로 한국영화주간이 재개최되었으며, 신상옥 감독의 1960년대 영화부터 2019년 개봉 영화인 '82년생 김지영'에 이르는 다양한 영화가 소개되며 호평을 받았다.

-자료원: 오스트리아 월간지 Falter-

o 2019년 10월 31일, 제21회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한오필) 공연이 비엔나 콘체르트 하우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비엔나 폭스 오페라의 상임 지휘자인 로렌츠 C. 아이히너(Lorenz C. Aichner)와, 한국과 오스트리아 등의 음악인 48명이 함께한 이번 공연에서 한오필은 한국인 신예 작곡가 이용범의 'Touch',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 백건우 협연의 'W.A.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KV 595)', 비엔나 국립오페라 바리톤인 라파엘 핑거로스(Rafael Fingerlos) 협연의 '구스타프 말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그리고 '프랑시스 풀랑, 심포니에타 FP.141'를 연주했다. 한국의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협연, 한국인 신예 작곡가 이용범의 초연 등으로 이번 공연에 대한 오스트리아 동포들과 비엔나 주재 외교단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콘체르트 하우스 650석을 가득 메운 관중은 한오필을 통해 성공적으로 초연을 가진 이용범, 완성도 높은 협연을 해준 한국의 거장 피아니스트 백건우와 바리톤 라파엘 핑거로스, 그리고 이번 공연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일궈낸 한오필 47명의 단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o 한국-오스트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한오필) 공연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 취소되었으나, 2021년 10월 27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개최됨으로써 양국의 재능있는 젊은 음악인들을 위한 등용문이자 음악을 통한 양국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매개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다시금 이어가게 됐다. 1999년 처음 개최된 이후 통산 22번째 연주회로 기록된 본 행사에서는 한국 및 오스트리아의 음악학도 43명과 솔리스트 신미정(피아노), 유디트 플리들(Judith Fliedl, 바이올린), 고대선(첼로)이 빈국립음대 교수 요하네스 빌드너(Johannes Wildner)의 지휘 아래, 요제프 바이어의 '코레아의 신부', 베토벤의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op.56, 요하네스 마리아 슈타우드의 바이올린 협주곡, 그리고 베토벤 8번 교향곡을 연주했다.

-자료원: 재오스트리아 한인회-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	2.4	2.6	1.4	-6.7	
명목GDP (십억\$)	417.72	454.9	445.1	428	
1인당 GDP (PPP, \$)	49,964	52,172	53,558	50,023	
1인당 명목 GDP (\$)	47,389	51,471	50,133	47,987	
정부부채 (% of GDP)	78.5	74	70.5	83.9	
물가상승률 (%)	2.1	2	1.5	1.4	
실업률 (%)	5.5	4.9	4.5	5.4	
수출액 (백만\$)	173,098	183,012	187,195	173,085	
수입액 (백만\$)	179,927	190,317	192,463	175,854	
무역수지 (백만\$)	-6,829	-7,305	-5,268	-2,769	-
외환 보유고 (백만\$)	21,939	24,720	25,634	30,293	
이자율 (%)					
환율 (자국통화)					

〈자료원 : WIFO국립경제연구소, OeN오스트리아은행, WKO상공회의소〉

경제 동향

오스트리아 경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광 등 서비스 산업에도 강점이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유럽을 휩쓸었던 국가 재정위기 및 이의 확대 우려로 2012년(0.8%), 2013년(0.3%), 2014년(0.4%) 연속으로 소폭 성장에 그쳤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 그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2017년 이후 3% 가까운 높은 성장세(2017년 2.5%, 2018년 2.4%)를 보였다.

2018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9년 1%대(1.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20년 들어서는 코로

나 19의 영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실질적으로 국가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서 -6.7%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2020년 여름, 잠시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또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나 유럽 전역의 확진자 급증과 거듭된 락다운의 영향으로 2020년 연말까지 불경기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2021년 1분기부터 플러스로 반전, 4분기 중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2021년 실질성장률은 +3%대로 마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연말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실업률 또한 2021년 1분기부터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 IMF,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KO(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경제 전망

경제전망	○ 2019년 시작된 경기 둔화세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연말까지 가속화되었으나, 2021년 1분기 이후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오스트리아 경제는 2021년 연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경기 회복, 수출 증가, 가계 소비 증가 등 전반적 경제 호조 요인을 보임에 따라 IMF는 2022년 오스트리아 실질경제성장률을 4.5%로 예측했다. 그러나 바이러스 추가 변이 발생 및 전세계적 차원의 공급 병목 현상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가능성 또한 병존하며, 2021년 2.8%로 예측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 2022년에는 3%를 초과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한다. ○ 2021년 오스트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오스트리아 정부의 기업 지원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2차례에 걸쳐 기업 지원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405억 유로의 코로나19 지원금의 집행이 완료되었다.(집행 내역: 단축근무 보조금 103억, 지급보증 72억, 지급유예 55억, 세금지원 52억, 긴급지원 30억 등) 2020~2021년 집행되고 있는 지원책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산 규모(계획): 총 380억 유로 - 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고용시장 안정화 [1차 40억 유로, 2020. 3. 15. 발표] ① 의료시스템 안정화(필요 장비 구입 등) ② 영업 중단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지원을 위해, 저리의 신규 기업 대출 및 기존 대출 연장에 대한 지급 보증 확대 ③ 고용 시장 안정: 코로나19 특별 단축 근로(단축 근무 근로자 실제 급여의 80~90% 지급) 및 특별 육아 휴가(초/중/고 휴교 조치에 따른 근로자 휴가 발생) 지원 [2차 340억 유로, 2020. 3. 18. 발표] ① 90억 유로: 대출금에 대한 지급 보증 규모 확대 ② 150억 유로: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큰 타격을 입은 산업 부문에 대한 비상 지원금 지급(매출액 손실이 40% 이상인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액 손실 보전 등) ③ 100억 유로: 세금 납부 유예 ○ 2021년 7월, 집행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자금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EU 경제회복기금 연계 경기 회복 프로젝트 또한 전반적인 국가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집행 기간: 2021~2023년 - 예산 규모(계획): 총 45억 유로(그린전환 회복, 디지털전환 회복, 스마트/지속가능/통합성장 회복, 일반 회복) ○ 세부 부문별 전망 자료(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Wifo), 2021년 8,9월 발표) - 실질 GDP 증가율: 2021년 4.4%, 2022년 4.8% - 실질 가계소비 증가율: 2021년 4.5%, 2022년 6.0% - 물가상승률: 2021년 2.8%, 2022년 3.0% - 실업률: 2021년 8.2%, 2022년 7.4%(고용근로자 기준)
------	---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48,813,846,805
2	미국	11,503,408,675
3	이탈리아	10,669,820,892
4	스위스	8,508,364,512
5	프랑스	8,201,378,194
6	체코	6,026,974,266
7	헝가리	5,956,901,055
8	폴란드	5,069,603,700
9	중화인민공화국	4,633,585,815
10	영국	4,587,699,45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4,692,527,047
2	미국	13,654,224,822
3	이탈리아	12,215,234,948
4	스위스	9,032,007,901
5	프랑스	8,009,046,090
6	체코	6,948,313,462
7	헝가리	6,555,760,776
8	폴란드	6,027,901,265
9	중화인민공화국	5,572,835,421

10	영국	5,196,535,356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1,675,441,192
2	미국	12,331,979,045
3	이탈리아	11,459,293,466
4	스위스	8,927,506,066
5	프랑스	7,921,441,722
6	헝가리	6,789,988,347
7	체코	6,289,552,682
8	폴란드	6,158,543,724
9	중화인민공화국	5,744,459,946
10	영국	5,191,682,53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0,586,174,342
2	미국	11,512,218,385
3	이탈리아	10,537,686,089
4	스위스	9,207,371,483
5	프랑스	7,391,454,356
6	폴란드	6,595,974,853
7	헝가리	6,224,601,517
8	체코	5,952,927,798
9	중화인민공화국	4,989,662,885
10	영국	4,813,490,477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1,157,233,436
2	이탈리아	10,259,326,596
3	중화인민공화국	9,569,081,221
4	스위스	9,164,185,708
5	체코	7,211,810,082
6	미국	6,538,223,586
7	네덜란드	4,691,876,695
8	Special Categories	4,608,659,876
9	헝가리	4,509,245,211
10	프랑스	4,457,970,267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5,625,982,025
2	이탈리아	11,833,870,356
3	중화인민공화국	10,779,264,715
4	스위스	8,562,382,666
5	체코	8,087,810,618
6	미국	7,073,262,937
7	네덜란드	5,221,859,149
8	프랑스	5,097,253,730
9	헝가리	5,063,163,429
10	폴란드	5,040,149,92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61,539,571,662
2	이탈리아	11,716,263,691
3	중화인민공화국	11,026,580,462

4	미국	8,009,162,179
5	체코	7,477,672,998
6	스위스	7,333,047,990
7	폴란드	5,374,548,735
8	헝가리	4,961,177,518
9	네덜란드	4,895,980,433
10	프랑스	4,785,487,656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57,366,095,294
2	중화인민공화국	11,645,305,916
3	이탈리아	10,448,597,287
4	스위스	9,193,985,222
5	체코	6,922,551,154
6	미국	6,014,573,306
7	폴란드	5,164,896,233
8	네덜란드	4,675,978,440
9	헝가리	4,489,770,314
10	프랑스	4,307,236,405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5,258,925,697
2	300490	기타	2,720,139,550
3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388,209,981
4	847710	사출 성형기	2,091,912,834

5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2,076,464,120
6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948,930,396
7	293719	기타	1,927,019,937
8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1,854,246,324
9	300439	기타	1,728,908,672
10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709,845,377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378,867,111
2	300490	기타	2,877,254,550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754,186,696
4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2,333,330,904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256,596,099
6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244,850,363
7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129,896,775
8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996,487,703
9	300439	기타	1,532,576,991
10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446,180,06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563,640,281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852,068,217
3	300490	기타	2,851,750,402
4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2,406,992,292
5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250,105,302

6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231,658,631
7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086,960,501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037,884,678
9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833,655,279
10	300439	기타	1,730,359,434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446,111,232
2	300490	기타	2,925,415,018
3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2,493,843,961
4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2,432,577,955
5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2,347,160,905
6	300439	기타	2,258,811,263
7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929,758,920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856,363,931
9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771,963,966
10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1,662,965,464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4,609,962,461
2	293719	기타	3,727,020,901
3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046,250,454
4	271121	천연가스	2,941,669,779
5	300490	기타	2,622,840,327

6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	1,830,034,904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629,544,470
8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1,469,368,715
9	271019	기타	1,399,348,586
10	870829	기타	1,347,490,362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533,131,761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2,500cc 이하인 것	4,150,478,397
3	271121	천연가스	3,621,837,332
4	300490	기타	3,073,324,743
5	293719	기타	2,945,261,517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294,368,826
7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	2,275,215,999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2,103,987,803
9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1,988,746,174
10	870829	기타	1,758,630,935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228,948,383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2,500cc 이하인 것	3,678,111,789
3	293719	기타	3,049,140,157

4	300490	기타	2,981,628,719
5	271121	천연가스	2,954,589,386
6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	2,232,128,734
7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120,692,159
8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2,117,858,335
9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852,696,470
10	271019	기타	1,665,023,009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300490	기타	3,165,743,989
2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2,980,728,928
3	293719	기타	2,564,679,301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482,111,224
5	271121	천연가스	2,294,801,644
6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081,629,803
7	300212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2,011,249,390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1,659,407,701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639,429,005
10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	1,450,643,947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7	959	1,615	-656
2018	1,077	1,810	-733
2019	865	1,553	-688
2020	1,066	1,628	-562
2021	1,199	1,782	-58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138	전산기록매체	208	0	207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173	12	160
3	8121	무선전화기	32	0	31
4	7414	전기자동차	102	2	100
5	7420	자동차부품	73	74	-1
6	7411	승용차	63	309	-246
7	8147	의료용전자기기	43	16	26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5	11	-7
9	8343	인쇄회로	24	3	20
10	8492	기타 중전 전기 부분품	9	4	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8138	전산기록매체	220	0	220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181	15	166
3	8121	무선전화기	155	0	155
4	7414	전기자동차	106	0	106
5	7420	자동차부품	88	59	29
6	7411	승용차	63	497	-434
7	8147	의료용전자기기	46	11	35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24	4	20
9	8343	인쇄회로	17	4	13
10	8492	기타 중전 전기 부분품	16	16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63	309	-246
2	0221	가축육류	0	56	-56
3	2262	의약품	2	71	-69
4	7420	자동차부품	73	74	-1
5	7441	철도차량	0	41	-41
6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3	30	-28
7	7412	화물자동차	0	27	-27
8	8425	자동화기기	1	30	-29
9	8313	개별소자반도체	4	6	-3
10	7215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12	21	-1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11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63	497	-434
2	0221	가축육류	0	146	-146

3	2262	의약품	5	59	-54
4	7420	자동차부품	88	59	29
5	7441	철도차량	0	51	-51
6	7322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8	34	-26
7	7412	화물자동차	1	31	-30
8	8425	자동화기기	0	29	-29
9	8313	개별소자반도체	3	25	-22
10	7215	고무플라스틱가공기계	5	24	-1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전기자동차		
HS Code	8703 80	수입액('20/US\$백만)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 현지 신차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 - 한국산 자동차의 인지도 상승에 힘입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심 지속적 증가 추세		
시장동향	- 2020년 11월 기준, 전체 신규 등록 차량 대비 전기차 비중 10% 돌파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 2021년 7월 누적수량 기준, 사상 최대치인 17.2% 기록 - 정부의 전기차 및 충전소 구매·설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시장 및 소비자 반응 매우 긍정적 - 친환경자동차 제품군 내 천연가스 자동차의 성장 정체, 2010년대 중반 이후 e-모빌리티(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성장세		
경쟁동향	- 폴크스바겐(VW)이 시장 선두업체이며, 2018년부터 No. 1 지위 유지. 1,908대(28.2%) 판매 기록을 세우며 선두업체였던 르노(Renault)(1,170대, 17.3%)를 제치고 시장 선두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그 뒤를 닛산, BMW 등이 잇고 있음 - 한국차의 경우 2018년 하반기부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2월 기준, 현대 7%, 기아 8%로 통합시장점유율 15% 기록. 전체 한국차 점유율 8%(현대 5.2%, 기아 2.8%)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치		
진출방안	- 제품의 성격상 전문 전시회에 참석이 현지 시장 동향 파악이나 관련 네트워크 형성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 대표 전시회: 매년 1월 수도 빈에서 개최되는 'Vienna Autosho(www.viennaautoshow.at)'		
품목명 2	전동킥보드		
HS Code	8711 60	수입액('20/US\$백만)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 공유서비스업체들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 노력에 힘입어, 관련 시장 빠른 성장세 시현		

시장동향	- 2019년 기준, 총 3만 대(1140만 유로)의 전동킥보드 제품 판매(전년 대비 +20%, 자료 : 오스트리아 스포츠용품 협회(VSS)) - 2016년 가을, 시장 첫 출시 후 가파른 성장세 시현 중으로, 2021년 5만대 규모 시장 예측 - 공유서비스 업체들의 공격적 시장 확대 노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2020년 준, 오스트리아 수도 빈 내 총 7개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등록 - 2018년 9월 350대의 전동킥보드로 사업을 시작한 Bird의 론치 이후 2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성과로, 급속한 시장 성장세 시현 중 - 빈 내, 공유서비스업체 운영 전동킥보드 수는 2020년 기준 약 6천 3백 대 수준		
경쟁동향	- 다양한 가격, 사양의 제품 출시로 치열한 경쟁 - 자동차 관련 월간지인 auto revue의 평가에 (www.autorevue.at)에 따르면, 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의 평가를 받는 우수모델은 MI M365(Xiaomi), seg-es2 Scooter(Segway), Colorway, GeekMe, Smartway - 소비자평가 1위 브랜드는 샤오미, 제품 평균 가격은 361유로		
진출방안	- (시장 전망)부정적 요인: 2021년부터 공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제공 요건이 기존의 등록 기준에서 허가 기준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 2020년부터 빈에서 시행되는 강화된 규정과 맞물려, 포화 상태에 이른 공유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잠식할 것으로 추측 - (시장 전망) 긍정적 요인: 지속적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의 수요 증가. 특히, 팬데믹 상황 하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서 소비자 관심 및 수요 증대 - 오스트리아 현지 공유서비스 업체를 통한 정확한 시장 조사 및 그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필수 요소 - 제품별로 정확한 타킷고객층 설정 및 공략 또한 중요한 요소		
품목명 3	의료기기		
HS Code		수입액('20/US\$백만)	2,60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선정사유	- 인구 99% 의료보험 가입의 우수한 건강/보건 시스템 - 꾸준한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 트렌드(OECD 국가 평균 상회)		
시장동향	2012년 이후 소폭 성장하던 시장이 2015년 19.5억 달러로 저점 기록 후 꾸준한 성장세 기록 당초 2020년 시장 규모를 22.9억 달러로 예측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		

경쟁동향	2020년 기준, 가장 높은 수입 규모를 기록한 제품군은 의료용 소모품으로 전체 수입의 28.0%(‘16-’20년 연평균 성장률 9.2%) ’16-’20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제품군은 환자보조기기로 매년 평균 10.6% 성장 디지털경제부 발간의 Life Science Report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업체 상당수가 현재 디지털 헬스 솔루션 분야에서 활동 중이며(전체 업체수의 38% 비중), 의료용 소프트웨어, 원격의료, 스마트헬스 제품군을 연구·개발 중		
진출방안	WKO(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유망분야로는 1) 기존의 의료기기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형태의 IT 의료기기 2)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과장비 및 소모품 3) 정형외과 장비 및 소모품, 4) 의료용 기타 소모품을 들 수 있음 생명과학 분야를 국가 역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련 R&D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 중으로 공모 및 협업 기회 발굴 유망		
품목명 4	유기농 화장품		
HS Code	3304 99	수입액(’20/US\$백만)	340
수입관세율(%)	0	대한수입액(’20/US\$백만)	1.47
선정사유	-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유럽 전체 시장 선도국 건강, 환경,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반영, 지속적 시장 성장세 전망		
시장동향	전체 화장품 시장, 2010년대 중반 이후 2% 내외의 꾸준한 성장세 시현 전체 화장품 시장의 약 15~20% 이상 비중 차지 시장/소비자 정보전문기관 Statista에 의하면, ‘21-’25년 연평균 성장률 9.2% 기록 예측(같은 기간 일반 화장품 1.3%) 마켓리서치 전문기관 GfK오스트리아에 의하면, 2020년 오스트리아 가정에서는 유기농화장품 사용이 소폭 증가(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면역력 강화 등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폭발, 소비재 제품 소비 트렌드로서의 친환경, 지속가능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		
경쟁동향	셀렉티브 채널인 퍼퐁머리 유통 No.1 기업 Douglas 등은 자연주의제품(최근 보다 큰 개념인 클린뷰티로 확장 트렌드) 별도 섹션 마련 매스마켓 내 진열 비중 또한 늘고 있으며, 대형 유통 채널의 경우 자체 PB 브랜드 출시 증가 시장 지배력이 강한 브랜드로는 매스마켓 채널 Weleda, Lavera, 셀렉티브 채널 Dr. Hauschka, Dr. Grandel 등이 있으며, 두 채널 모두 신규 브랜드 입점 활발		
진출방안	- 클린뷰티 관련 공식 인증은 아직 미시행 중이나, 친환경화장품 인증은 잘 정립되어 있고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또한 높으므로 이의 확보를 통한 적극적 마케팅 추천 - 성분, 효과, 패키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을 강점으로 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해간다는 K-뷰티 이미지를 적극 활용, 매스 및 셀렉티브 각 채널에 부합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 구사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SW
선정사유	- 오스트리아 IT 산업 부문의 꾸준한 성장세
시장동향	- 오스트리아 IT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135억 유로 규모인 가운데, 이 중 소프트웨어 부문은 32억 유로 정도로 전체의 23.4% 차지 - 정부 및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투자 및 R&D 활동 등이 맞물려, 향후 지속적으로 연 3~5%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 오스트리아 IT 시장은 글로벌 기업 및 오스트리아 대형업체들이 주도
진출방안	- 오스트리아 IT 시장에서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의 진출은 매우 부진한 상황 - 이는 오스트리아 IT 시장의 폐쇄성에 기인한 바가 큰데, 제품의 구매 및 유통 채널 상의 폐쇄성으로 인해 삼성, LG 등 국제적 인지도를 지닌 대기업 제품을 제외하고 현지 지명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들의 경우 시장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 - 오스트리아 인근 독일 등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를 통해 일차적으로 현지 업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2	물류 서비스
선정사유	-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유럽, 특히 동유럽 현지 생산기지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으로부터 현지 생산기지들에 공급되는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
시장동향	- 오스트리아는 지정학적 위치 및 우수한 육상 운송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근지역 항공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인근 동유럽 한국 생산법인들에 공급되는 항공 물류의 대부분이 빈 국제공항을 통과 - 이러한 한국 고객들을 유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지 물류회사 및 한국계 물류회사의 경쟁 치열 2019년에도 CJ 대한통운이 현지 지점 설립 통한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
경쟁동향	- Cargo Partner, Schenker, Gebrueder Weiss 등 대형 현지 업체들과 한국계 대형 물류회사 이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중소규모의 물류 및 포워딩 회사들이 다수 존재
진출방안	- 고정 거래처 확보가 필수조건 - 경쟁력 있는 가격 못지않게,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중요시되는 추세
품목명 3	의료관광

선정사유	- 외국 여행 증가 추세 속 한국에 대한 관심 크게 부족 -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앞세운 특화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 필요
시장동향	- 연간 외국(EU 포함)으로의 여행객 수 513만 명 - 아시아 여행객 수는 19만 명으로, 전체 외국 여행의 3.7% 차지 - 오스트리아 방문 한국 여행객이 연 5~10%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한국 방문 오스트리아 여행객 숫자는 2017년 1만 명 돌파 이후 정체 양상 - 이는 한국에 대한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대부분의 여행사 한국 관광 상품 미출시 - 의료관광객 유치의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최우선 해결과제
경쟁동향	-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로 여행상품이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여행상품 라인업 미비 -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홍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되는 관련 전시회에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진출방안	- 현지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일반 대중 상대의 홍보가 가장 바람직 - 대표 전시회: ‘매년 1월 수도 빈에서 오토쇼와 함께 열리는 관광 전시회 ‘Ferien Messe(www.ferien-messe.at)’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2015.10. 협상개시, 직전협상 2019. 5.)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무역협정 현대화 추진중(2016. 5.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2018. 4. 협상 원칙적 합의, 2020. 4.28. 협상 타결, 법률검토 작업 후 비준 추진 예정).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5)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럼(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1-01	잠정 발효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astern and Southern Afric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 8. 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 1.)과테말라(2013.12. 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2월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부로 FTA 발효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01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2016.10.	
FTA(Free Trade Agreement)	ASEAN	2009. 3. 다자간 협상 잠정 중단함의 2009.12월, EU- ASEAN 개별회 원국 간 양자협정 추진계획 발표 양자협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협정 가능성 타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태국	협상 중. 직전 협상: 2014. 5.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 11.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 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중, 직전 협상: 2016. 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직전 협상: 2013	2021. 5. 8. 협상 재개 합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 6.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 6.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2020. 12. 30. 타결 후 비준 추진 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 준 추진 잠정 중단(2021. 5.~)	
Update of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제르바이잔	협상 중, 직전 협상: 2019. 4.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혈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 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헬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 인증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 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 -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 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과 함께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물질 등록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 기업은 생산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EU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EU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정황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이번 발표된 제도가 법제화 되는 경우, 향후 보조금 관련 EU 규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의 예의주시가 특히 요구된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공개했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환 기간을 두고 2023년 1월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인증서 구매 필요 없이 탄소배출량에 대한 신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으로,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분야	HS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자료: EU 집행위

TBT

기술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적으로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허용 농도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카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 EU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임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앞으로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업계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핀란드,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KOTRA 원천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했으며,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한다. 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21.7.1.~)	개정 전 (~’21.6.30.)	개정 후
VAT 면제 조건(~22 €) 폐지 (EU 역내 기업에 공정경쟁 보장) 에 VAT 과세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 가치가 22 € 이하인 물품에 한해 VAT 과세 면제	기존 규정 폐지 → 온라인 거래를 통한 모든 수입품
IOSS 시스템 도입 템) 등록을 통한 (VAT 행정 현대화 및 절차 간소화) 입	EU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역내 사업자는 현지 규정에 따라 상품 도착국에 VAT 개별 신고·납부 의무	IOSS (원스톱 관부가세 간소화 시스 VAT 신고 및 납부 제도 도 → EU국 통합 운영에 따라 1회
시스템 등록 후 VAT 신고 납부 가능		EU 전 회원국에 걸쳐 판매상품
VAT 규정 준수 매자에게 VAT (징수·신고·납부·보관) 책임이 전자상거래 납세 의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전 (VAT 탈세 방지)	상품 판매자가 판매 시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VAT 징수, 사후 직접 신고 및 납세 의무	온라인 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판 원천 징수, IOSS를 통해 신고 및

자료 : EU 집행위 및 독일 세관 자료 종합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한편, 22유로 미만 소규모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된다. EU 집행위는 수많은 역외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등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가격을 22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빈번했다고 밝히며 면제제도의 폐기이유를 설명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2021.4.19)

2021년 4월 19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가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

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한국에서 출발한 오스트리아행 화물은 주로 수도 빈 인근의 Schwechat에 위치한 빈 국제공항을 통해 오스트리아로 들어온다. 이후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인근의 국가들로 재운송되는 경우가 많은데, 1989년 이후 유럽연합의 국경이 모든 회원국에 개방된 이후 빈의 물류허브로서의 위상은 급격히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빈을 통과하는 화물의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이곳의 이상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기인하는데, 주변 15개 국가의 국경이 하루 이내, 23개 국가의 국경은 하루 반나절이면 육상으로 도달할 수 있다. 실제로 빈 도착 화물 중 상당수는 오스트리아 내 수송보다 인근 국가로의 수송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코로나 이전 기준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의 물동량은 350,000톤으로, 총 74개의 항공사가 200여 개의 목적지를 취항하는 조건으로 트럭킹(trucking)을 통해 중동부 유럽의 주요 고객들에게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주간 18회 정도의 화물기를 취항하고 있으며, 현대, 기아, 삼성, LG 같은 대기업 고객사들이 동유럽에 판매법인뿐만 아니라 생산거점도 보유하고 있어 물류 수요가 상당하다. 이들 대기업 물량들이 대부분 빈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항공사와 실제 고객사 간의 물량을 핸들링해주는 중소 물류대리점도 다수 빈에 위치하고 있다. 빈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코로나 이전 기준 연 2천 5백만 명 수준이다.

2) 통관 관련 유의사항

◦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권리 확대: EU는 2016년 6월부터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권리를 확대해 간편하고 신속한 수출입 절차를 통해 통관진행 용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EO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EU 수입통관 시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시스템상에 내용을 기입할 수 있으며, 관세조사 및 물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면제를 받게 된다. 또한, 자율심사(Self-assessment)로 수입 관세가격 자율 결정 권한 및 일부 세관통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AEO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인증 형태로 구성되며, 1개 회원국 내 인증 획득 시 전체 EU에서 통용된다.

- 세관 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 : 간소화된 절차 혜택 부여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 : 안전과 관련된 절차 혜택 부여
- 세관 간소 + 안전 인증 : 상기 두 개 인증을 합친 것

AEO 인증은 세관 당국에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이 수여되며, 자격획득 요건으로는 범죄 무기록 보유자, 재무건전성, 조세 등 경제활동에서의 위반행위가 없었어야 한다. 특히, 세관 간소 인증의 경우에는 세관수행 활동에 관련된 전문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인증의 경우에는 제품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

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 통관 오스트리아에서 약식통관은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 (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2) 정식 통관 정식통관은 오스트리아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가스 등)등은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우편 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오스트리아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4) 일괄 통관 화물이 판매 완료되기 전에 오스트리아 항구에 도착한 경우 구매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컨테이너를 일괄 통관한 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데, 화물을 보세상태로 보관하다가 출고하는 경우 매번 발생하는 수입통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다만 VAT를 물류업체가 대납하거나 한국업체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재정적 부담감이 있고, 납부한 VAT는 보통 4~5개월 이내에 환급할 수 있다. 5) 보세 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오스트리아 이외 EU 국으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오스트리아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	---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오스트리아 이외 EU 국가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통관 예정인 통관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되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 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를 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70유로가 든다. 또한 관세 및 부과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가 연기된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	--

통관 시 유의사항

1)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오스트리아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

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권리 확대

EU는 2016년 6월부터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권리를 확대해 간편하고 신속한 수출입 절차를 통해 통관진행 용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AEO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EU 수입통관 시 일반적인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전자시스템 상에 내용을 기입할 수 있으며, 관세조사 및 물품 검사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 면제를 받게 된다. 또한, 자율심사(Self-assessment)로 수입 관세가격 자율 결정 권한 및 일부 세관통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AEO 자격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인증 형태로 구성되며, 1개 회원국 내 인증 획득 시 전체 EU에서 통용된다.

- 세관 간소(Customs simplification) 인증 : 간소화된 절차 혜택 부여
- 안전(Security and safety) 인증 : 안전과 관련된 절차 혜택 부여
- 세관 간소 + 안전 인증 : 상기 두 개 인증을 합친 것

AEO 인증은 세관 당국에서 심사를 거친 후 자격이 수여되며, 자격획득 요건으로는 범죄 무기록 보유자, 재무건전성, 조세 등 경제활동에 서의 위반행위가 없었어야 한다. 특히, 세관 간소 인증의 경우에는 세관수행 활동에 관련된 전문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안전 인증의 경우에는 제품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오스트리아 통관시 필요한 서류 및 정보

◦ 상업송장 : 송장(invoice), 가격 신고서(발송당 물품 가치가 10,000유로 이상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B/L(선하증권) 부분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부분, 수입 라이선스가 요구되는 품목은 수입 라이선스, 산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은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은 식물 병리학 증명서, 핵 제품과 폭발물은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은 수입 허가나 CITES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EU의 관세율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PNL VIE(한국업체)

주소	Objekt 262, Stiege 7, Raum A02.095 1300 Wien-Flughafen
전화번호	+43-1-9007 34381
이메일	lswsaru@pnlinternational.co.kr
홈페이지	http://www.pnli.co.kr

○ Rail Cargo Logistics

주소	Am Hauptbahnhof 2, 1100 Wien
전화번호	+43-5-7750 2
이메일	office.rcl@railcargo.com
홈페이지	http://www.railcargologistics.com

○ Cargo Partner(한국인 직원)

주소	PO Box 1, Airportstrasse, 2401 Fischamend
전화번호	+43-5-9888 11316
이메일	atfis@cargo-partner.com
홈페이지	http://www.cargo-partner.com

○ Maurice Ward Logistics(한국인 직원)

주소	Object 263, Zimmer 02/211-212, Tuer 2.
전화번호	+43-1-7007 32282
이메일	vienna@mauriceward.com
홈페이지	http://www.mauriceward.com

○ HTNS Logistics(하나로 TNS)

주소	Air Cargo Center, Object 262. Entrance 8, Room A01.082
전화번호	43 1 7007 35605
이메일	s.park@htns.com
홈페이지	http://www.htns.com
비고	KOTRA 공동물류센터 협력회사

〈자료원 : 오스트리아 관세청〉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오스트리아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인센티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 투자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에서 오스트리아 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투자인센티브

1)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 대상

-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구조 개선 분야
- 지역 경제의 성장 및 고용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 지역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분야
- 오스트리아 내 또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근 국가(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의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

○ 종류

- 저리 융자(ERP Fund,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의 Funding Programs)
- 정부 보조금(Austria Wirtschaftsservice, EFRE)
- 지급 보증(Austria Wirtschaftsservice, 지방 자치 단체의 개별 지급 보증 프로그램)

○ 지원 한도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15% + Bonus
- 부르크엔란트, 발트피어텔(Waldviertel), 바인피어텔(Weinviertel) 지역 투자 중소기업 : 투자금액의 20% + Bonus

2) 중소기업(SME) 투자 인센티브

○ 대상

-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 분야 투자
-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 관련 투자

○ 종류

- 저리 융자(ERP Fund, 다양한 지방 자치 단체의 Funding Programs)
- 정부 보조금(Austria Wirtschaftsservice, ERDF)
- 지급 보증(Austria Wirtschaftsservice, 지방 자치 단체의 개별 지급 보증 프로그램)

- 지원 한도
 - 소기업 : 투자 금액의 15%
 - 중기업 : 투자 금액의 7.5%

3) R&D 투자(기술 개발) 관련 인센티브

- 대상
 - 상품화 가능(관련 Risk 포함)한 기술 혁신 관련 R&D 투자
- 종류
 - 저리 융자(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ERP Fund)
 - 정부 보조금(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개별 지방 자치 단체)
 - 지급 보증(Austrian Research Promotion Agency; FFG)
- 지원 한도
 - 산업용 R&D: 투자 금액의 50%
 - 실험용 투자(Pre-market Research): 투자 금액의 25%

4) 환경 보호와 관련한 투자

- 대상
 - 공기 정화
 - 폐수 및 하수 처리
 - 재생 에너지
 - 에너지 효율 증진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 종류
 - 연방 정부 보조금
- 지원 한도
 - 기존의 환경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의 환경보호(중소기업만 해당함): 투자금액의 15%
 - 규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 보호 관련 투자: 투자 금액의 30%
 -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기술 투자: 투자 금액의 40%

5) 코로나19 대응 신규투자 보조금(Investitionspraemie)

- 신청 기간: 2020년 9월 1일 - 2021년 2월 28일
 - *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기업은 2021년 9월까지 관련 청구서 제출
- 도입배경 : 팬데믹 속 신규 유/무형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투자 보조금제도
- 제외대상
 - 기후 파괴적
 - 단순 토지매입
 - 기업 매입

- 자체 생산 후 사용된 내역
- 2020년 8월 1일 이전에 시작된 투자
- o 보조금 범위
 - 신규투자액의 7%
 - 디지털, 생태학, 건강, 라이프사이언스 분야의 투자 시 총 14%

제한 및 금지(업종)

오스트리아는 거의 전 산업 분야(99.7%)에 걸쳐 외국인 투자가 개방되어 있다. 금지 대상 종목은 환경오염 산업, 국가 독점 사업 등 극히 일부분이다. TV 무선 방송은 2002년부터 자유화되었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국과 금지 대상을 통일할 예정이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오스트리아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인센티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특별경제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	---

산업단지

o Industriezentrum Noe-Sued

규모	2,800,000㎡
위치	Strasse 3, M19, Postfach 70, A-2355 Wiener Neudorf, Austria
임차료	- o 공장: 월 4.75유로/㎡ - o 사무실: 월 9.15유로/㎡
관할기관 및 연락처	- o 전화: +43-2742-9000 19600 - o 이메일: fragen@ecoplus.at - o 홈페이지: www.ecoplus.at
비고	- o 2021년 5월 기준, 한국업체 1개사 입주 - 업체명: KCP GmbH - 주소: IZ NOe-Sued Strasse 2a, Objekt M10, A-2351 Wiener Neudorf, Austria - 설립년도: 2018년 - 종업원수: 4명

〈자료원 : 오스트리아 디지털경제부〉

주요 지역별 여건

- o 빈(Wien)
 - o 중심 도시: 빈
 - o 면적: 415km²
 - o 인구: 1,888,776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31,110유로
- 주(州) 1인당 GDP: 44,7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1,5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20.50유로/m²
- 특징: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다수의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의 현지 법인이 위치해 있음.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쉽고, 제반 인프라가 가장 발달하여 있는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 및 인건비 수준이 높음.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스라바와의 쌍둥이 도시(Twin City) 계획, 동구권 국가들에 근접한 지정학적 위치 등의 장점이 있는 지역

○ 니더외스터라이히(Niedersterreich)

- 중심 도시: 상트 팰턴
- 면적: 19,186km²
- 인구: 1,670,668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32,649유로
- 주(州) 1인당 GDP: 30,4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2,8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8.75유로/m²
- 특징: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와 함께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많은 지역으로 수도 빈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지하기에 좋은 지역 중 하나

○ 오버외스터라이히(Obersterreich)

- 중심도시: 린츠
- 면적: 11,980km²
- 인구: 1,473,576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30,693유로
- 주(州) 1인당 GDP: 37,8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2,1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10.70유로/m²
- 특징: 오스트리아 제1의 공업 도시 린츠가 위치한 지역으로, 각종 기계 및 자동차 공업 관련 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임. 세계적인 철강 기업 Voest Alpine사도 이 지역에 있음.

○ 포랄베르크(Vorarlberg)

- 중심 도시: 브레겐즈
- 면적: 2,601km²
- 인구: 391,741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29,584유로
- 주(州) 1인당 GDP: 41,1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2,7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10.75유로/m²
- 특징: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 특성상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공업보다는 관광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
- 주요 기업: Blum Gruppe, Zumtobel, Liebherr Werk Nenzing, Doppelmayr, Wolford, Rauch Fruchtsfte

○ 슈타이어마르크(Steiermark)

- 중심 도시: 그라쯔
- 면적: 16,401km²
- 인구: 1,240,214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29,057유로
- 주(州) 1인당 GDP: 33,0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1,5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10.90유로/m²
- 특징: 오스트리아 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온천 및 휴양 시설들로 더욱 유명한 지역. 자동차 및 의료 장비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
- 주요 기업: Andritz, Voestalpine Metal Engineering Division, Magna Steyr, Roth Gruppe, AVL List, Magna Powertrain, Sappi Austria, AT&S, JCL Logistics, Mayr-Melnhof Karton

○ 티롤(Tirol)

- 중심 도시: 인스부르크
- 면적: 12,640km²

- 인구: 751,140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26,975유로
- 주(州) 1인당 GDP: 40,2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1,4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11.50유로/m²
- 특징: 산악 지역이라는 특성상 스키 등의 관광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2차 산업 등의 발달은 미미한 지역
- 주요 기업: Adolf Darbo, Swarovski, GE Jenbacher, Plansee SE, Riedel Tiroler Glashuette, Sandoz, Swarco Holding, Fritz Egger, Theoni Industriebetriebe

○ 케른텐(Krnten)

- 중심 도시: 클라겐푸르트
- 면적: 9,538km²
- 인구: 560,898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29,019유로
- 주(州) 1인당 GDP: 31,6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1,1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9.45유로/m²
- 특징: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관광지로서 더 유명한 지역. 제조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한국의 기아 자동차가 클라겐푸르트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했었음(2021년 5월 기준, 빈 소재)
- 주요 기업: Infineon Technologies, Flextronics, Treibacher Industrie, Mondi Frantschach, Kioto Clear Energy, Bosch Mahle Turbo Systems

○ 부르겐란트(Burgenland)

- 중심 도시: 아이젠슈타트
- 면적: 3,962km²
- 인구: 292,675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30,866유로
- 주(州) 1인당 GDP: 25,7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1,8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9.40유로/m²
- 특징: 농업 등 1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2차 산업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잘츠부르크(Salzburg)

- 중심 도시: 잘츠부르크
- 면적: 7,156km²
- 인구: 552,579명
- 근로자 연평균 임금(세전): 28,492유로
- 주(州) 1인당 GDP: 44,800유로
- 1인당 가처분 소득(구매력): 22,400유로
- 사무실 평균 임차료(중심 도시 기준): 월 12.85유로/m²
- 특징: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인 잘츠부르크는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으나, 독일 뮌헨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기계 공업 관련 업체들도 많은 지역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8508.31	14953.1	5287.33	967.54	-17339.7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2033.5	10251.1	5611.77	10894.4	-3213.23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3	1	3,079	3	3,089
2020	4	0	5,685	3	5,075
2021	3	2	5,233	6	1,01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	0	4	1	4
도매 및 소매업	2	1	3,075	2	3,08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2	0	1,186	2	592
도매 및 소매업	1	0	4,499	1	4,483
정보통신업	1	0	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	------	-------	------	------	------

제조업	1	1	150	1	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1	5,083	5	94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Kumho Tire Europe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차량용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 Kia Motors Austria

진출연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Korean Air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항공물류운송
모기업명	대한항공

○ Samsung Electronics Austria

진출연도	198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삼성전자

◦ Asiana Airlines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항공물류운송
모기업명	아시아나 항공 카고

◦ LG Electronics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LG 전자

◦ Glovis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글로벌비스

◦ Woojin Plaimm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연구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기계제조
모기업명	우진플라임

◦ Miwon Austria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연구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
모기업명	미원스페셜티케미(주)

◦ Samsung SDI Battery Systems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삼성 SDI

◦ Postec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
모기업명	포스텍 전자(주)

◦ KCP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건설장비
모기업명	케이씨피중공(주)

◦ ZKW Holding GmbH

진출연도	201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전자(차량용 조명 시스템)
모기업명	LG 그룹(LG 전자(주) 70%, (주)LG 30%)

◦ HTNS Austria GmbH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운송/물류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하나로 TNS

◦ Hankook Tire Austria GmbH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차량용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 Samsung SDS Global SCL Austria GmbH

진출연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IT
취급분야	ICT 서비스
모기업명	Samsung SDS Co, LTD.

◦ SC. Min GmbH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무역
취급분야	철강 제품
모기업명	SC. Min Innovation

○ Virnect Vienna Research Branch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지점
업종	IT/소프트웨어
취급분야	증강현실 관련 소프트웨어
모기업명	Virnect Co, LTD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유한회사(GmbH), 주식회사(AG) 등을 설립할 경우, 출자금액 안에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오스트리아에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이 오스트리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오스트리아 회사와 동일하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지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 회사의 경우 대부분(80% 이상)이 유한회사(GmbH) 형태로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주식회사(AG)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하지만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 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한회사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한 기구이며 통상적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사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은 외부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 범위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해당한다.

지사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은 오스트리아 내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본사인 외국 법인이 오스트리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사가 EEC 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은 1인 이상의 지점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 동 대표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임기는 지점의 존속 기간이다.
 - 동 대표는 지점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 다만, 지점의 경영과 관련한 대표 범위는 제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공동 대표 임명도 가능하다.
- 본사가 EEC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 지점 대표를 임명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회사 등록 신청 시 본사인 외국 법인의 정관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독일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에 따른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자본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 자본금의 1%인 자본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별도의 상업 장부를 작성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신청한 후 회사 명부를 발급받기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참고로 ABA에 따르면 한국 본사를 기준으로 지점 설립 시, 파견된 주재원의 비자발급 애로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주재국 소재 대표를 임명할 계획이 아니고 주재원 파견 예정일 경우, 유럽본부를 본사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락사무소

현지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인들이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로 오스트리아 내에서 영리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최소 자본금 등이 필요 없는 형태이다. 공식적인 설립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하루 안에 모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통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본사와 연결해서 연락사무소 자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락사무소라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업무 기록과 금전 관련 증빙 자료를 포함하는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 절차

- 설립 요건: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법인
- 설립 결의: 본사 연락사무소 설립 결의, 연락사무소 대표 임명(연락사무소 대표는 반드시 오스트리아 거주자이어야 함)
- 사무실 임대차 계약
- 구비 서류: 연락사무소 등록 신청서, 본사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공증 필, 독일어 번역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신청 및 등록: 1~2일 소요

ABA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법적 지위 기반이 약해 세무당국에서 집중관리를 받는다. 이에 설립취지에 맞춰 수익 발생 여부 등 필요증빙을 항시 대비해야 한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환경 오스트리아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이나 인센티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스트리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회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 투자에 따른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에서 오스트리아 기업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별 투자 인센티브,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R&D 투자 관련 인센티브, 환경보호 인센티브 등의 지원제도가 잘 발달해있으며, 관련 정보는 연방투자진흥원(Austrian Business Agency, https://investinaustria.at/e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연방 정부 및 개별 州정부 산하의 투자유치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연방 정부 산하의 연방투자진흥원으로, 투자와 관련한 각종 절차 및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투자 진출 형태별 유의사항 ○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유한회사(GmbH), 주식회사(AG) 등을 설립할 경우, 출자금액 안에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오스트리아에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이 오스트리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오스트리아 회사와 동일하게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지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스트리아에 진출하는 외국 회사의 경우 대부분(80% 이상)이 유한회사(GmbH) 형태로 현지 법인을 설립한다. 주식회사(AG)보다 유한회사가 선호되는 이유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지위와 대우가 거의 동등하지만 주식회사 설립이 유한회사 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곧바로 주식 시장에 상장할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한회사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는 특수한 경우에만 필요한 기구이며 통상적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사회 구성이 필요한 경우에 법인은 외부감사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 범위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해당한다. ○ 지사: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법인(유한회사, 주식회사)은 오스트리아 내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본사인 외국 법인이 오스트리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회사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사가 EEC 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은 1인 이상의 지점 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 동 대표: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임기는 지점의 존속 기간이다. - 동 대표: 지점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표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점의 경영과 관련한 대표 범위는 제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공동 대표 임명도 가능하다. - 본사가 EEC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경우 지점 대표를 임명할 수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회사 등록 신청 시 본사인 외국 법인의 정관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독일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에 따른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자본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납입 자본금의 1%인 자본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별도의 상업 장부를 작성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신청한 후 회사 명부를 발급받기까지 통상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연방투자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본사를 기준으로 지점 설립 시, 파견된 주재원의 비자 발급 애로 발생 가능성이 크니, 주재국 소재 대표를 임명할 계획이 아니고 주재원 파견 예정일 경우, 유럽본부를 본사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연락사무소: 현지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외국 법인들이 지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로 오스트리아 내에서 영리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최소 자본금 등이 필요 없는 형태이다. 공식적인 설립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하루 안에 모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통상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본사와 연결해서 연락사무소 자체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연락사무소라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내에서의 업무 기록과 금전 관련 증빙 자료를 포함하는 완전한 회계 기록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관할 법원 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설립 요건: 본사가 오스트리아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 법인 - 설립 결의: 본사 연락사무소 설립 결의, 연락사무소 대표 임명(연락사무소 대표는 반드시 오스트리아 거주자이어야 함) - 사무실 임대차 계약
--------------------------	---

	- 사무실 임대차 계약 - 구비 서류: 연락사무소 등록 신청서, 본사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공증 필, 독일어 번역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신청 및 등록: 1~2일 소요 연방투자진흥원에 따르면 연락사무소는 법적 지위 기반이 약해 세무 당국에서 집중관리를 받는다. 이에 설립 취지에 맞춰 수익 발생 여부 등 필요 증빙을 항시 대비해야 한다. 3) 분쟁 해결 투자 및 현지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시도돼야 하지만, 여의찮을 시 계약 조항 위반 여부 등과 관련해 법률에 의지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 현지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함께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법인 형태로, 근거 법령은 1965년에 제정된 주식회사법(AktG)이다.

유한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7만 유로이다. 설립 신청 시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주들의 이름을 회사 명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1인 주주인 경우 주주의 이름 및 주소를 회사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의 회사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 명부(Firmenbuch)에 등록됨으로써 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은 유한회사와 유사하다. 대표이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가 필수 기관이며 이사회 구성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임기는 최대 5년까지이다.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추후 상장 등의 절차가 예상되는데, 재무 보고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정들이 까다롭게 적용된다. 결산과 관련한 재무제표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9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주식회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비엔나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 중 한 곳에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유한책임회사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설립된 회사 형태로, 1906년 제정된 유한회사법 (GmbHG)이 그 근거 법령으로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범위는 자본금 납입으로 한정된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 발기 인원 수는 2인 이상이며, 전문 변호사들이 일단 발기인으로 등록하고 회사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퇴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유한회사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의 회사 등록 절차를 거쳐 회사 명부(Firmenbuch)에 등록됨으로써 그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회사 등록 신청서는 모든 사원들이 서명한 후 공증을 거쳐야 한다. 등록 신청 시 필수 서류 중의 하나인 정관은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한다. 1인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 대신 공증을 받은 설립 의향서(Erklärung über die Errichtung der Gesellschaft)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3만 5천 유로이며, 사원의 지분은 최소 7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 자본금의 현물 출자도 가능하나 최소 50% 이상은 현금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현물 출자가 50%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설립 감사(Gründungsprüfung)를 받아야 한다. 회사 설립 단계에서는 일단 최소 자본금의 50%인 1만 7,500유로를 은행에 예치한 증명이 있으면 된다. 단,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개정/시행되었던 관련 규정(최소자본금 1만 유로)과의 절충안으로 법인 설립 시 1만 유로의 50%인 5천 유로의 현금 예치 증명만 있으면 일단 법인 설립(소위 GmbH Light)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천 유로로 유한회사를 창업한 기업주들에게는 별도의 의무와 제약 사항이 따른다. 회사 설립 후 10년 내에 현금 납입액의 차이인

1만 2,500유로를 완납할 의무가 주어지는데, 우선적으로 매년 영업 이익의 25%가 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모자라는 부분은 주주의 현금 납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에 이들 ‘자본금 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한회사와 ‘정상적’인 유한회사와의 구별을 통해 채권자 및 비즈니스 상대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5천 유로로 시작한 유한회사는 자본금 완납(1만 7,500유로)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명에 단순한 ‘GmbH’가 아닌 ‘GmbH gründungsprivilegiert’라는 명칭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0년 내에 1만 2,500유로의 부족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11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이 의무화된 바,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주가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 또는 법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오스트리아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필요는 없다.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2000년 10월 1일부터 동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거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설립 절차
 - 설립 요건: 최소 2인 이상 발기인, 정관 작성, 자본금 결정(최소 자본금 35,000유로), 최소 자본금의 50% 이상 은행 예치
 - 사무실 임대차 계약
 - 자본거래세 납부: 설립 자본금의 1%
 - 구비 서류: 법인 설립 등록 신청서, 정관(공증 필), 사원들이 결의한 이사 임명안(공증 필), Managing Director 샘플 서명(공증 필), 자본거래세 납부 영수증, 자본금 은행 예치 증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 신청 및 회사 명부 발급: 1~2주 소요

개인사업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r)로 등록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 등과는 달리 본인의 자산으로 사업체의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보통 연 매출액이 40만 유로 이상일 때) 상업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실제로 외국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개인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이 체제 허가(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으로, 사업자 등록이 체제 허가 취득을 보장해 주는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개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 체제 허가를 받는 것이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취업)을 통해 노동 허가 및 체제 허가를 취득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체제 허가를 취득했다고 할지라도,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체제 허가 갱신(보통 1년 단위)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신고 매출액 등 갱신을 위해 지켜야 할 '암묵적'인 기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투자진출 방법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zeiler.partners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3-1-890 1087-73
주소	Stubenbastei 2,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ww.zeilerfloydzad.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권인화 변호사(Kwon, Innhwa)
비고	이메일: innhwa.kwon@zeiler.partners 중대형 법무법인으로, 한국 변호사인 권인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 Herbst Kinsky Rechtsanwälte

전화번호	+43-1-904 2180-0
주소	Dr. Karl Lueger-Platz 5, 1010 Wien
홈페이지	http://www.herbstkinsky.at
이메일	florian.steinhardt@herbstkinsky.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중대형 법무법인으로서, 담당자인 Mr. Florian Steinhardt 변호사가 법인 설립 등에 경험이 많다.

◦ DSC, Rechtsanwalt Partnerschaft

전화번호	+43-1-319 4520
주소	Whringer StraBe 2-4, 1090 Wien
홈페이지	http://www.dsc.at
이메일	office@dsc.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중대형 법무법인으로서, 한국 삼성전자의 오스트리아 자회사 설립에 관여한 바 있다.

◦ Wolf Theiss Partner

전화번호	+43-1-515 10
주소	Schubertring 6, 1010 Wien
홈페이지	http://www.wtp.at
이메일	wien@wolftheis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대형 법무법인으로서, 동유럽 지역에 여러 곳의 지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큰 회사로 아시아 지역 회사들과의 비즈니스 경험을 가지고 있다.

◦ ECOVIS Scholler & Partner Wirtschaftstreuhand GmbH, Steuerberatungsgesellschaft

전화번호	+43-1-599 22-26
주소	Schmalzhofgasse 4, 1060 Wien
홈페이지	http://www.ecovis.at
이메일	wien@ecovis.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비엔나 등 오스트리아 네 곳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 회계법인으로, 60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회계 및 세무 서비스,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Grant Thornton Unitreu

전화번호	+43-1-262 62
주소	Handelskai 92/Gate 2/Top 7A, 1200 Wien
홈페이지	http://www.grantthornton.at
이메일	office@at.gt.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2010년 11월 Grant Thornton과 Unitreu의 합병으로 탄생한 150명 규모의 대형 회계법인이다. 다국적 대형 업체인 Grant Thornton International의 파트너 업체로서, 회계 및 세무 서비스, 감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내에 세 곳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 Wieneröiter Raffling Tenschert & Partner Rechtsanwälte GmbH

전화번호	+43-1-99 727 49
주소	Universitaetsring 12/1/13,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rtp.at/en/
이메일	office@wrtp.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한국 기업 현지 법인 설립 관련 경험이 있다.

◦ Alix Frank Rechtsanwälte GmbH

전화번호	+43-1-5232727
주소	Schottengasse 10, 1010 Wien
홈페이지	http://www.alix-frank.com/
이메일	austrolaw@alix-frank.co.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중소 규모의 법무 법인이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1991년 말부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따라서 내국인의 외국 은행 계좌 운용, 국내 기업의 외국환 표시 채권 발행 등이 자유화되었다. 특히, EU 가입 이후 EU 및 EEA 국가로서 자본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EU 규정에 맞춰, 2004년 이후 외환거래법(Devisengesetz)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외환 관리 시스템은,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에 의해 운영 통제된다.

관련 외환법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업데이트 시행):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20003062>

외환 규제

1) 개요

외환 관리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에서 집행하나 경상 거래, 자본 거래 등이 모두 자유화되었다. 1만 4,500유로 이상의 외환 거래의 경우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외환관리는 유럽연합 협약과 오스트리아 통화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연한 통화관리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자본 이동의 자유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다른 국가들 간의 지불 및 자본 이동 등에 있어 법률적 제한은 없다.

외국 회사는 오스트리아 자본 시장에 아무런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외국환 거래는 오스트리아 국립은행(OeNB)에 보고가 되지만, 대부분 통계를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외국 회사의 오스트리아 현지 법인 설립 및 철수와 관련한 외환 유입 및 유출도 한국처럼 관련 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나 허가 사항이 아니다.

2) 과실송금

외환 거래의 자유화로 투자 자금에 대한 과실 송금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 자금에 대한 특별 우대 조치는 없지만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며, 경제적 후진 지역이나 특별 산업 진흥이 필요한 부문에 지원되는 혜택을 국내 기업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0.82유로(2021년 9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161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2,986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2
비고	오스트리아는 최저임금을 규정한 법이 없고, 산별 노사협약 때문에 산업별로 월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2021년 9월 기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1,500유로(1,829.28달러) 수준으로, 이를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0.09유로(12.30달러)이다. 고용주가 가입한 노사협약이 가장 중요하며,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원 : Pederson & Partners, WKO(상공회의소)〉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고용 계약

사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인터뷰 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용자는 고용 사실이 확정된 후 이를 해당 사회 보험 회사에 통고하여야 한다. 업체별로 견습 기간(최고 1개월)을 거쳐 정식 사원이 된다. 수습 기간이라도 사회보험 회사에 통보가 필요하다. 수습 기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전 고지 기간 의무 없이 쌍방 중 일방이 단독으로 고용 계약 해지가 가능한데, 수습 기간 최고 1개월의 근거는 오스트리아 민법(ABGB) 및 사무직 노동자법(AngG)이다.

아울러 수습기간에도 100%의 급여를 지급한다.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산업별로 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의 단체 협약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련 샘플은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오스트리아 연방상공회의소 : https://www.wko.at/branchen/w/gewerbe-handwerk/gewerbliche-dienstleister/personaldienstleister/Dienstvertrag_Angestellte.pdf

한 예로, 서비스 업종(단체 협약에서 제외된 업종) 표준 계약서의 경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주체, 퇴직연금, 근로개시(수습기간 관련 내용 포함), 근로 영역, 근로 장소, 근로 시간, 급여, 휴가 등

2) 상여금

○ 사무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법(Angestellten Gesetz, 약어 AngG, 제국법발표지 1921년 292호) 제16조에 의거 사무직 근로자는 특수 수당 형태의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동 법은 상여금의 수준을 기본급의 최소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오스트리아 사무직 노조 연맹 및 공무원 노조에서 체결한 단체 협약에서는 1년에 월 기본급 200% 이상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대법원 판례도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 생산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들에 상여금을 규정한 노동 법규는 없으며, 오스트리아 노동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오스트리아의 모든 생산직 근로자들은 오스트리아 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이 체결한 단체 협약의 혜택을 받는다. 사용자와 산별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서 생산직 근로자는 1년에 월 기본급의 200% 이상을 받게 되어 있다.

○ 지급 시기

상여금 지급 시기는 단체 협약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회사별로 차이가 크다. 공무원들과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매 분기 마지막 달에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받는다. 일부 회사는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여름과 겨울에 각각 100%씩 두 번 지급하기도 한다.

3) 외국인 고용 관련

외국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모든 외국인은 노동 허가를 취득하여야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최근 내국인 실업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여서 노동 허가 취득이 힘들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97년부터는 일정한 노동허가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반사무직이나 일반 생산직에 대한 쿼터는 없고, 간부급 사원이나 특수숙련공에 대해서만 일부 쿼터가 있다. 모든 자격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쿼터가 이미 채워진 경우에는 노동허가 발급이 거부된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인력 부족 산업 부문 및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캐나다의 이민점수 제도를 본떠 RWR(Rot-Weiss-Rot) 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노동 및 체제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기존 시스템의 쿼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해당 노동 비자 발급과 관련한 통합 포털 사이트인 www.migration.gv.at 를 오픈해 운영하고 있는데, 독일어 및 영어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곳을 통해 자신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몇 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조회해볼 수 있다.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법은 외국인 고용법(AuslBG(Auslaenderbeschaeftigungsgesetz))인데, 한국에서 파견된 오스트리아 주재원 등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비자로는 위에 언급한 RWR 카드(2019년 3월 관련법 개정으로, 최소 월 급여 조건 하향 조정 등 발급 조건 완화) 이외에 ICT 비자가 있다. ICT(Intra-Corporate Transfer) 비자는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오스트리아 현지 법인에 파견된 본국 주재원을 위한 비자(舊 Rotation 비자)로, RWR 카드 대비 발급 조건이 덜 까다로워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비자이다.

근로시간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이 원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조정 가능한데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주당 38시간 근로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도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과거에는 하루 10시간, 주당 50시간이었으나 2018.9.1.부터 관련법이 개정되어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주당 1회, 최소 연속 36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의 최소 50% 이상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무는 2002년 이후로 허용되었다.

휴가

오스트리아 근로자들은 1년에 최소 5주의 유급 휴가를 가진다. 한 업체에서 2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동 기간은 최대 6주까지이

다.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은 출산 예정일 전후 8주씩 총 16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다. 육아와 관련하여 최대 30개월(부모가 번갈아 사용한 경우 최대 36개월)의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오스트리아 사회보험조합으로부터 월 430유로 정도의 육아 보조금(Kinderbetreuungsgeld)가 지급된다.

근로자들은 1년에 최소 6주에서 최대 12주까지 유급(급여 전액) 병가를 가질 수 있으며, 급여의 반을 받는 반 유급 병가를 추가로 4주 신청할 수 있다.

해고

고용 계약은 상호 합의, 계약기간 종료, 사직/해고 등의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근로자에 의한 갑작스러운 사직, 고용주에 의한 해고의 경우 적절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직의 경우 특별한 사유는 필요치 않으나, 단체 협약상에 명시된 의무 고지 기간을 지켜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직일 최소 한 달 전에 회사 측에 알려야 한다.

직원 해고 시, 구두통보 또는 서면통보 두 가지 모두 효력이 있으나, WKO(상공회의소)에서는 증빙을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재국은 군 복무 중인 자, 수련생, 공익근무 중인 자, 육아휴직자, 노조 대표 및 임원 등 일부를 해고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해고해야 할 경우 노동사회법원의 동의를 필요하다. 동의를 없을 시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동의 시 고용주는 바로 해고를 통보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해고사유가 적법하지 않을 경우, 피고용인은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2002년 이후 폐지된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WKO(상공회의소)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노무전문가와 상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적법한 해고사유는 근로기준법(Gewerbeordnung 1859)에 명시되어 있다.

퇴직금

과거(2003년 이전)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법 규정은 없었으나, 산업별 단체 협약(KV)에 의거 통상 3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근속 연수에 따라 최소 2개월~최대 1년 치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하지만, 법제화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2003년 관련법을 신설하여 고용주들이 의무적으로 월 급여의 1.53%를 퇴직적립금으로 펀드에 가입하도록 법제화시켰다.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기업(고용주)이 급여의 3.78%, 종업원이 급여의 3.87%를 각각 부담하며, 종업원 부담분을 회사가 원천징수해 회사 부담분과 함께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OeGK)에 납부한다.

(2020년 이전에는 주(州)별로 주 의료보험공단에 납부(수도 비엔나의 경우 빈 의료보험공단(WGKK))했으나, 2020년부터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OeGK)으로 관련 업무 및 조직이 통합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고용보험

기업(고용주)이 급여의 3.0%, 종업원이 급여의 3.0%를 각각 부담하며, 종업원 부담분을 회사가 원천징수해 회사 부담분과 함께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OeGK)에 납부한다.

산재보험

급여의 1.20%를 회사가 부담하며,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OeGK)에 납부한다.

국민연금

1) 가입 의무자

- 소득이 월 333.16유로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와 임금 노동자
- 직업 훈련자
-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영자
-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하는 자로, 연간소득이 6,453유로(부업인 경우 3,713유로) 이상인 사람
- 용역 계약자로 월 소득이 333.16유로 이상인 사람(자유직업자로 간주함)
- 오스트리아에 주소가 있는 가정주부, 저소득 근로자는 신청 시 연금 가입 가능
- 기타 15세 이후의 학교 교육 기간, 군 복무 기간, 출산, 상병, 실업수당 수급 기간 및 자녀 양육 기간(최대 48개월)도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2) 연금 급여의 종류, 지급액 등

- 노령 연금: 65세(여자 60세) 도달자로서 최종 30년 중 가입 기간이 180개월 이상이거나 가입 기간이 300개월 이상이거나 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 노령 연금의 대상자가 된다. 가입 기간이 45년(여자 40년) 이상인 61.5세(여자 56.5세) 도달자로 소득이 월 333.16유로 이하이고 일정 요건 해당자는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장애 연금: 교육 수준이 비슷한 가입자에 비해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자로서, 최종 10년(50세 이후의 1개월당 2개월 추가)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60개월 이상(50세 이후의 1개월당 1개월 추가), 가입 기간이 300개월 이상 또는 보험료 납부 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경우(57세 이상자에게는 수급 요건이 완화됨) 장애 연금의 대상자가 된다. 장애연금 중 부분 연금은 소득이 월 958.3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부분 연금을 지급한다.
- 유족 연금: 사망한 가입자가 사망 당시 장애 연금의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이나 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했거나 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3) 연금 청구기관: 오스트리아 연금 공단(www.pensionsversicherung.at)

4) 보험료율 : 기업(고용주)이 급여의 12.55%, 종업원이 급여의 10.25%를 각각 부담하며, 종업원 부담분을 회사가 원천징수해 회사 부담분과 함께 오스트리아 건강보험공단(OeGK)에 납부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오스트리아의 회사법은 한국의 회사법과는 달리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가 부과되는 회사는 유한회사(GmbH)와 주식회사(AG)뿐이다.

기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 이득은 영업 이득으로 과세된다. 법인세율은 25% 정액 세율이 적용되는데, EU 평균 23.5%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인근 동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은바 오스트리아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지속적인 인하 압력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9년 5월 법인세 인하가 포함된 조세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혁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으로(2022년 23%, 2023년 21%), 2021년 10월 발표된 조세개혁안에 따라 우선 1단계 조치인 23%로의 인하가 확정되었다.

개인소득세

개인에 대한 소득은 종합 개인 소득세를 기준으로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연말 정산의 경우 연말에 가족현황, 의료비 등의 지출을 감안한 소득세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른 소득세 공제액을 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연간 소득이 1만 1,000유로 이하인 경우 소득세 면제)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9년 5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조세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 개혁안의 핵심은 소득세율 인하였다. 그러나 2019년 9월 29일 시행된 임시총선 결과 국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소득세율 인하 조치 시행은 잠시 연기되었다가 2021년 10월 최종 조세개혁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2022년 7월부터 적용 예정)

조세개혁안에 포함된 연간 소득에 따른 기준 소득세율 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1,000유로 이하: 현행 0% → 변동 없음
- 11,001~18,000유로: 현행 20% → 변동 없음 (코로나 긴급 지원 차원으로 2020년부터 시행. 2019년 이전에는 25%)
- 18,001~31,000유로: 현행 35% → 30%
- 31,001~60,000유로: 현행 42% → 40%
- 60,001~90,000유로: 48% → 변동 없음
- 90,001~1,000,000유로: 50% → 변동 없음
- 1,000,000유로 초과: 55% → 변동 없음 (연대세율(Solidaritatssteuersatz)로, 2016년부터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동 세금으로 확보된 세금은 오스트리아 R&D 및 교육 펀드 재원으로 사용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중의 하나로, 11,001~18,000유로 구간의 소득세율을 25%에서 20%로 인하는 조치는 2020년부터 시행이 확정되었다. 나머지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오스트리아의 부가가치세율은 공산품 20%, 식품품 10%인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20%: 기본세율(일반 재화 및 서비스)
- 13%: 숙박업, 살아있는 동식물/종자, 문화 서비스(연극, 공연, 영화 티켓 등), 사료, 목재, 항공 티켓, 박물관, 사우나/온천, 동물원 입장료 등(2016.1.1. 신규 시행).
- 10%: 식품, 농수산물, 주거용 건물 임대, 승객 운송, 의약품
- 0%: 수출품 및 수출입과 관련한 일부 서비스
- 부가세 면세 사업자: 은행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 병원, 의사, 치과 의사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중의 하나로, 2020년 하반기 시행되었던 요식업, 문화 산업(공연 등), 미디어 부문(서적/신문/잡지 등) 등에 적용되는 부가세율 인하 조치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되고 있다.

- 요식업: 10%(음식) 또는 20%(음료/주류)→5%
- 문화 산업: 13%→5%
- 미디어 부문: 20%→5%

이번 조치의 목적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 손실 보전 목적으로, 부가세 인하와 관계없이 일반 소비자 판매가(부가세 포함)는 변동이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 업체들의 매출을 5~15% 증가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별소비세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되거나 오스트리아로 수입되는 석유 및 석유제품(유류세), 담배(담뱃세), 알콜 등에 부과된다. 특별 소비세는 제품의 단위당 고정 금액으로 과세되며,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된다. 담배의 경우는 고정금액과 더불어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도 과세되고 있다.

- 특별소비세 조회 링크(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

https://www.wko.at/service/aussenwirtschaft/Welche_Waren_fallen_unter_die_Verbrauchssteuer_.html

기타

○ 부동산 관련

- 부동산 취득 시 등록세: 거래액의 1%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 거래가액 0~250,000유로: 거래액의 0.5%
 - 거래가액 250,001~400,000유로: 거래액의 2.0%
 - 거래가액 400,000유로 초과: 거래액의 3.5%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30%

○ 재산세는 1994년 폐지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08년 8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오스트리아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을 두어 각각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는 부정경쟁법에 규정되어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실용신안의 심사는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나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허권자는 의약품의 승인된 활성 성분 또는 특허(기초 특허)가 적용되는 식물 보호 제품에 대해 추가 보호 인증서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기간에 소요되는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디자인법에 의하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제품의 특성, 예를 들어 색상, 모양, 표면 구조 및 재료 등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이고 25년 한도로 5년씩 갱신 가능하다.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호는 즉, 이름, 문자, 숫자, 로고, 3차원 형태, 소리, 색상 및 기호 등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이것이 한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와 구별하는 데 적합한 것이라면 이는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문학, 음악, 시각 예술 및 영화 예술의 지적 창작물은 저작자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고, 저작권에 대한 사용권은 양도 가능하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의 출원 절차 안내 영문 서비스 <https://www.epo.org/searching-for-patents/legal/register.html>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지적재산소유물 등록 온라인 서비스 <https://euipo.europa.eu/ohimportal/en/online-services>

9.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청산 절차를 통해 회사를 철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 계약, 특히 고용 계약과 관련하여 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노조가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청산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노조 측과 협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노조와의 협의 절차는 청산 관련 사측과 노조 측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비즈니스 환경의 중요한 변화가 예상될 때, 노조측은 사측에 노조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책(Social Plan)의 실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AMS(Arbeitsmarktservice)에 반드시 사전 통보해야만 한다.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등이 존재하는 회사(주식회사(AG), 유한책임회사(GmbH) 등)의 경우, 법률에 정해진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철수 및 청산 결정

오스트리아에서 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정관에서 규정된 영업 기한의 만기
- 주주총회 결의(공증 필):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 결의에 따름
- 합병
- 파산절차 개시

이 밖에, 회사 정관에 별도의 청산 사유를 명시해 놓을 수 있다.

2) 청산인 임명

회사를 청산하기로 했으면 한 명 이상의 청산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대표자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인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등록부(Firmenbuch) 말소(청산 절차 완료) 시까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청산인의 의무

임명된 청산인은 청산개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회사등록부(Firmenbuch)에 회사의 청산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등록해야만 한다. 등록 이후 회사는 'Liquidations-Firmenwortlauf' 상태가 되며, 'in Liquidation' 또는 줄여서 'in Liqu'로 표시된다.

청산인은 청산 개시 사실을 관보 성격의 일간지인 'Wiener Zeitung'에 공시하고,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야 한다. 공시 비용은 약 150유로가 발생한다.

청산인은 회사 영업 종료, 채권 회수, 자산 매각, 채무 변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부채의 변제가 끝난 후 남은 잔여 자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된다.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회사의 경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회사등록부(Firmenbuch)에서 말소될 수 있다.

청산 과정에서 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 이득(Capital gain)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다. 청산 수익과 주당 투자액과의 차액 또한 주주들이 납세 의무를 지는 항목이다. 다만, 청산 수익 분배에 대한 원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회사가 채권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부채의 일부만을 변제하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권리 포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부분도 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도 다시 계산하여 세무 당국에 정산하여야 한다

청산 절차 기간 관련, 법에 정해진 별도의 기한은 없다.

청산 절차 완료 후 청산인은 청산완료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주총회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4) 회사등록부 소멸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회사등록부 법원(Firmenbuchgericht)은 해당 회사의 회사등록부 소멸을 승인함으로써 청산 관련해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5) 기타 - 청산 관련 비용

청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법인등기부 삭제비용(18~36유로)이며, 나머지는 절차 수행에 따르는 변호사 비용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사무실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부분으로, 계약서에 계약 해지 관련 내용에 명기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서에 따라 해지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임대기간이 경과했다는 전제 아래 일반 주택의 경우 3개월, 상가 및 점포의 경우 6~9개월 법적으로 사전고지 의무가 있다.

* 관련법

- 회사등록부법(Firmenbuchgesetz): Bundesrecht konsolidiert: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Firmenbuchgesetz, Fassung vom 25.05.2021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2997>

- 파산규정(Insolvenzordnung): Bundesrecht konsolidiert: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Insolvenzordnung, Fassung vom 25.05.2021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1736>

- 회사법(Unternehmensgesetzbuch): Bundesrecht konsolidiert: Gesamte Rechtsvorschrift für Unternehmensgesetzbuch, Fassung vom 25.05.2021

<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normen&Gesetzesnummer=10001702>

6) 유의 사항

통상적으로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등과는 달리, 해외 지점(Zweigniederlassung)의 경우 청산 절차가 완료되는 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해외 지점의 경우, 본국 소재 본사를 행위의 주체로 삼아 청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채권 신고 등에 필요한 기간이 훨씬 길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의 경우, 개별 사정에 따라 유한회사(GmbH) 형태가 아닌 해외 지점의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법인 설립 시 이후 청산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까지 감안해서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기업 사례 참고 시, 해외 지점의 경우, 청산 절차 완료에 법률자문이 꾸준히 필요하며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오랫동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있었으며, 예술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1인당 GDP는 4만 8,377 달러(2020년 기준)로 EU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가 잘 완비된 관계로(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부문 지출은 GDP의 약 34.4%(2020년 기준) 노후 걱정이 없어서 저축보다는 소비 성향이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OECD 데이터 기준, 동일 언어권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약 23.1% 수준의 저축률을 보이는 데 반하여 오스트리아의 저축률은 14.5%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또한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OECD의 삶의 질 지수(OECD Better Life Index) 자료에 의하면, 1인당 평균 구매력(가처분소득)은 2020년 기준, 3만 3,541달러로 전년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5~64세 근로 인구의 고용률 면에서도 2020년 기준, OECD 평균인 68% 대비 높은 72%를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인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스트리아 내 연금 수령인구가 소비의 주체로 부각되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한 트렌드로 지적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기대수명은 82세로 OECD 평균인 80세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른 실버산업의 발달 속도 또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 인구를 타겟으로 하는 노인전문 전시회 Lebenslust 실버 박람회도 매년 개최되는 등 이들은 새로운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원 : OECD, 오스트리아 통계청>

소비 성향

1) 개요

오스트리아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격/품질의 정도를 잘 고려하며, 2000년대 들어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관심의 증가로 에너지 및 자원 절약형, recycling 가능 여부 등이 제품 구매 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7~8월과 2월경의 할인 판매 기간을 많이 이용하여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외에도 특별 할인 품목 등 저렴한 제품을 선호한다. 내구재의 구입에 있어서는 품질과 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여가의 증가 및 건강 의식의 증대로 레저, 스포츠에 대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분야의 대표적인 품목은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여권 신장, 나아가서는 남녀평등이 제도화되어 마케팅적 관점에서는 여성용품의 소비 기반이 강하며, 여성의 직장 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각종 편의용품 및 레저, 스포츠용품 등의 수요 기반도 견고하다.

2) 품질 및 가격

오스트리아 시장에서는 물량으로 밀어붙이기식의 전략은 통하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의 상관관계가 가장 중시된다. 부연하자면 가격 대비 품질의 우수성, 품질 대비 가격의 저렴함이 가장 우선적인 구매 포인트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오스트리아에 대한 수출은 반드시 A/S가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스트리아 내에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있는 외국 유명 업체들의 경우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친 부품 교환소 및 고객 상담실 설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3) 구매 시즌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서 크리스마스, 부활절 등의 종교적 명절을 전후한 기간이 특수 시즌이다. 입학 시즌은 9월이며, 이외에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에 학용품 등의 수요가 많다.

한국 상품 이미지

오스트리아 시장 진출에 성공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결과, 오스트리아 시장에서 한국 기업 및 관련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TV,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한국 제품의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후원하는 각종 스포츠 행사 또한 시청자들에게 한국 기업 및 제품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현대, 기아, 전기/전자/IT 부문의 삼성, LG 등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및 소비자 신뢰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18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부문에서 전기자동차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 2020년 12월(2021년 기준 최신자료),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차의 시장점유율은 현대 7%, 기아 8%로 통합시장점유율 15%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한국차 시장점유율 8.0%(현대 5.2%, 기아 2.8%)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미래 산업 부문으로 각광받는 전기차 부문에서 한국산 제품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9년부터는 BTS, 블랙핑크 등 K-Pop의 인기가 급부상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며 이는 한국 제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에서 30대까지의 젊은 여성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하여 K-뷰티에 대한 관심 및 호응이 높아지는 추세로, 오스트리아 2위 온라인 리테일러 업체인 Zalando는 2018년 10월 개최되었던 오스트리아 진출 설명회에서 이를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제품군으로 강조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K-방역의 성공으로 주요 일간지(Presse, Kurier 등)에 여러 번 보도되는 등 한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 작전

가격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지를 두고 협상을 시작한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많이 깎아 주면 오히려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국제 경쟁 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가끔 30일 이내에 결재할 경우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

2) 지불 조건

오스트리아와 처음으로 거래하는 경우, 통상적인 안전장치로서 신용장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높은 은행 수수료 때문에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보통은 T/T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현지 여건에 맞게 거래 조건에 있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3) 장기적 안목의 접근 필요

오스트리아 기업들의 속성상 한두 번의 거래를 위해 생산업체를 물색하는 경우는 드물며,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가 가능한 생산 업체와의 접촉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은 소량 주문을 통해 제품의 시장성 테스트, 생산 업체의 약속 이행 여부, 품질 준수 여부 등 거래의 기본 요소들을 점검한 후 신뢰가 쌓이면 주문량을 늘리는 관행을 보인다. 따라서 초기 단계의 소량 주문에 탄력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신뢰가 구축되고 나면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한국 업체들이 접촉 방법의 미숙으로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 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어에게 제품 검토를 요청할 경우, 회사 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 조건, 제품 설명서, 샘플 등 제품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발송한 후 거래 희망 여부를 팩스, 전화, e-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오래된 기업의 경우 아직 e-메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회사 로고가 명기된 팩스를 더 신뢰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바이어가 선호하는 통신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 업체들은 한국 업체가 보낸 서류에 대한 검토도 자신들의 업무 계획에 맞춰 검토하므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는 구매 부서가 별도의 회사로 분리되어 구매 본부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구매 본부의 본연의 업무인 제품 소싱이 연중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회신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지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오히려 반감을 낳아 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 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 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 편지를 규칙적으로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수년 전에 무역관이 제공했던 특정 국내 업체의 카탈로그를 내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 수요가 생기자 뒤늦게 비로소 해당 업체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꾸준하고 인내하는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4) 현지 비즈니스 관행 존중

현지 바이어와 미팅 등 본격적인 비즈니스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유럽에서 통용되는 품질인증(규격 인증)인 CE 마크 등은 취득은 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상담을 진행할 경우, 제품의 우수성과는 별개로 '준비가 안 된' 업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다. 또한, 첫 상담 때부터 수입 규모, 연 매출액 등 회사 기밀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쾌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다.

비즈니스 상담이 잘 진행된 경우, 오스트리아에서는 NDA 또는 MOU를 체결하는 것을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동유럽의 EU 가입 이후 다양한 동유럽계 바이어들이 오스트리아 현지에 진출하여 영어에 서툰 아시아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리한 조항을 몰래 삽입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사례 : 국내기업 A社は 동유럽계 바이어 B社와 NDA를 체결했는데 독점판매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B社와의 거래가 부진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잠적한 B社를 포기하고 신규 바이어 C社와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후 B社は 국내기업 A社에게 NDA 조항을 근거로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했다. 다행히 A社の 현명한 법적 대응으로 해결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5) 언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 권이기 때문에 제품의 설명서나 홍보 자료 등은 기본적으로 독일어로 갖추어야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한국 상품들은 대부분 영어로만 설명서나 광고 문안이 작성되어 있어서 진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비재의 경우, 유럽산 제품들은 제품 설명서나 홍보 자료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적어도 4개 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 회사들도 이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수출 대상 지역별로 대상 언어로 작성된 설명서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설명서나 홍보 자료에 4개 국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지식재산권 보호

오스트리아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철저하며 대부분의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모조 상표나 특허권 침해 등 부정 경쟁은 엄정한 단속대상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비즈니스 에티켓

오스트리아는 학위 타이틀(Mag/MA 석사, Doktor 박사 등)을 이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대면 이전에 이메일이나 편지를 발송할 일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의 이름에 학위 타이틀을 병기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처음 만나는 경우 자신을 먼저 소개할 필요가 있다. 악수하는 것은 인사 예절로 정착되어 있으므로 만날 때와 헤어질 때 반드시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여성 존중 예절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어떤 장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언제나 여성에게 우선권이 있다. 악수할 때에도 여성과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영화에서 동양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을 자주 보아 왔기 때문에 동양인과 만났을 때 은근히 그런 인사를 기대하고 있다. 동양식으로 악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는 인사법은 오스트리아인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Aperitif(식사 전 식욕을 돋우기 위해 마시는 술)를 마시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식 대접을 하는 경우에 Aperitif을 권해 보는 것이 좋다. 후식을 먹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식사 후 커피를 시키기 전에 후식을 권해보는 것도 예의에 속한다.

2) 접촉 시 유의사항

거래 관계에는 오스트리아 측의 문의에 대하여 가부 간의 정확한 답변을 신속히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길이다. 거래 타진의 경우 한국 측에서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정확한 답변을 기피하여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대만이나 홍콩 등의 경쟁국에서는 신속하게 정확한 가부 의사를 전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관공서 직원들은 외국인 육체 근로자들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관공서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넥타이와 정장을 갖추어, 외국인 노동자로 오인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상담 요령

상술한 대화 요령을 바탕으로 일단은 Small Talk를 진행한 뒤 시작하며, 가격 문제는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니 언제나 약간의 여분을 두고 협상을 시작하되 터무니없이 많이 깎아주면 의심을 하게 되므로 가능하면 현지 경쟁 가격을 고려하여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먼저 거래 가격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기존의 거래 가격 선에서 상담을 시작하여 기존의 거래 가격보다 약간 저렴하게 최종 offer를 하게 되면 가격 면에서는 만족하게 된다.

대부분이 동양인에 대해서 '사귀기 힘들지만 일단 사귀고 나면 의리가 강한 사람들'이라는 막연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려고 일부러 인사도 동양식으로 차려자세로 머리를 굽혀 하는 등 동양적 냄새를 풍기는 것도 신뢰감을 일으키는 한 방법이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은 게르만 민족 중에 북부 독일인과 비교하여 인정이 많은 편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상담 작전을 짜는 것이 좋다.

4) 문화적 금기사항

◦ 식탁에서의 금기

소리를 내서 음식을 먹거나 입을 벌리고 음식물을 씹는 것은 예의에 크게 벗어난 행동이며 수프나 국물, 국수를 후루룩 소리 내어 먹는 것은 절대 금기이다. 오스트리아 예절에는 식탁에서 트림하는 것도 절대적인 금기사항이므로, 식후에 트림이 나오는 경우 손으로 입을 막고 될 수 있는 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곧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은 입에서 마늘냄새가 나는 것을 매우 싫어하므로 상담 전에 식사한 경우에는 양치하고 상담에 응하는 것이 좋다.

◦ 흡연 시 예절

미국에 비하면 흡연에 대해 관대한 편이지만 흡연을 원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식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예의이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음주 관련 예절

일반 식당이나 술집에서는 포도주, 위스키, 맥주 등을 잔으로 팔고 있으나, 음식 대접을 할 경우 포도주는 병으로 시키는 것이 예의이다. 식사 때나 술자리에서나 각자 주량에 따라 자신의 술만을 주문하거나 스스로 따라 마시는 것이 습관이므로, 상대방의 잔이 비었으면 가볍게 한 번 정도 권하는 정도로 족하다. 절대로 술을 강권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잔이 빈 경우에는 상대방에 구매받지 않고 술을 주문하거나 따라 마셔도 상관없다. 대부분 포도주나 맥주를 즐겨 마시며 위스키나 꼬냑 또는 브랜디 등 독주는 식후 소화를 위해 한잔 정도 마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식사에 곁들이는 반주는 포도주나 맥주 정도로만 하는 것이 좋다.

◦ 외국인으로서 반드시 피해야 할 담화 주제

19세기 말 프로이센과 전쟁에 패배하여 독일 지배권을 상실한 사건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며 독일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오스트리아는 1차 세계대전 후 소국으로 전락한 데 대해 약간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에 대한 지나친 칭찬은 금하는 것이 좋다. 같은 소국이면서 독일어 문화권인 스위스에 대해서는 경쟁 심리가 있으므로 스위스에 대해 지나친 칭찬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국민의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며 영미권의 개신교에 대해서는 유사 종교라는 편견을 가진 사람도 많으므로 한국에 많이 퍼져 있는 개신교 관련 주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종교를 물어올 경우 가톨릭이 아닌 여타 기독교 신자라면 간단히 개신교 신자라고만 밝히고 주제를 바꾸는 것이 좋다. 무교라고 하면 공산주의적 무신론자를 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종교를 물으면 가급적 일정한 종교를 말해주는 것이 좋다. 잠재적인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는 유대교 및 유대인들에 대한 논의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편 불교, 유교, 도교 등 동양 종교를 믿는다면 그대로 밝히면서 다소 설명을 곁들여도 좋다. 동양 종교라면 다른 문화권 지역의 종교로서 인정해 주면서 호기심을 갖지만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의 종교라는 문화적 우월감과 선입감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이다.

5) 기타 유의 사항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오스트리아에서도 간혹 단축 근무,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회사로 전화 연락을 시도했을 경우 원하는 담당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메일 등의 연락에 회신이 없는 경우 또한 자주 발생하는 데, 한국 업체의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회사 전화번호 또는 공용 메일로 연락해서 원하는 담당자의 핸드폰 번호나 개인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개인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 예의에 벗어나는 일로 간주하며, 또한 유럽연합 일반 데이터보호 규칙(GDPR)에 따라 직장 동료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범법 행위에 해당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러한 현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오스트리아 업체의 상대방에게 자꾸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게 되면, 결국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향후 비즈니스 진행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회신 지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과는 조금 다른 비즈니스 문화, 코로나19 등 현지 상황을 감안해서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무역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 무역분쟁을 대비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럽게 잠적하기보다는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계약서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Amazon(www.amazon.de)

○ 개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Amazon의 독일·오스트리아 지역 대상 플랫폼으로, 현재 오스트리아 내 매출 최대규모의 e-커머스 유통망이다.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과 판매자(Amazon Seller) 판매 제품 외에, PB 브랜드 Amazon Basics 등이 입점해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미국의 모기업 Amazon.com의 설립 5년 후인 1999년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기준 고용인원은 2만여 명, 오스트리아 내 매출 규모는 834.3억 달러에 이른다.

○ 주요 판매 품목: 가전제품, 디지털기기, 가정 주방용품, 정원용품, 공구류,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건강 유아용품, 미용 제품, 개인 생활용품, 의류 신발, 장신구, 서적/cd 등 다양한 품목이 입점해 있으며, 최근 할인 행사를 접목한 정기구독 서비스를 내세우며 식품 아이템에 대한 판매 지원 또한 강화하고 있다.

○ 특징: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이라는 전용 회원 대상 무료 배송 서비스를 13개의 거점 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 아마존 플랫폼을 통해 시행되는 프라임데이(Prime Day) 할인 판매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한정된 시간, 일부 전략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행사(Limited Time Deal) 및 정액의 상품권 지급 행사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 자료원: Handelsverband Oesterreich(오스트리아 상거래협회, 2020)

2) Zalando(www.zalando.at)

○ 개요: 의류, 신발, 액세서리 판매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뷰티 카테고리를 추가하며 제품군을 늘린 이후 최근에는 중고제품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추가하는 등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2008년 독일 베를린에서 소규모 온라인 신발 판매 스타트업으로 창업 후, 2010년 오스트리아, 스위스로 사업지를 확장하였다. 2020년 기준 유럽 23개국에 진출해있으며, 고용인원은 16,000명, 오스트리아 내 매출 규모는 346.8억 달러다.

○ 주요 판매 품목: 4,500여 개 브랜드의 남성, 여성, 아동용 의류, 신발, 스포츠웨어, 액세서리, 화장품 입점을 통한 패션·뷰티 전문 온라인스토어로 소구하고 있다.

○ 특징: 활발한 온-오프라인 광고 집행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왔으며, 탄소배출을 줄인 택배 상자 사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 인력의 다양성·포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ESG 모범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3) Universal(www.universal.at)

○ 개요: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통신판매업체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글로벌 2위 온라인 판매업체인 독일의 Otto 그룹의 소유로 되어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모기업은 1957년 창업하였으며, 현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은 1968년 첫선을 보였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전 연령대를 통해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고용인원은 600명, 매출 규모는 111.9억 달러다.

○ 주요 판매 품목: 의류, 가구·리빙용품, 가전용품, 정원용품, 스포츠 장비·의류 외에 멀티미디어, 가전 제품군이 입점 되어있다.

○ 특징: 가전제품 등 특정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 3년간의 보증기간, 할부 서비스 등을 통해 여타 온라인몰 대비 차별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4) ShopApotheke(www.shop-apotheke.at)

○ 개요: 유럽 최대의 온라인 약국 유통망인 Shop Apotheke에서 오스트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으로, 주로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입점되어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모기업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는 2012년 시작되었다. 유럽 8개국 시장을 포함하는 Shop Apotheke Europe의 고용인원은 2019년 기준 1,175명이며, 2020년 기준 오스트리아 지역 매출 규모는 93.7억 달러다.

○ 주요 판매 품목: 일반의약품, 건강식품, 차, 유아용품, 화장품, 동종요법 제품 40,000종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의약품 전문몰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을 감안하여 100명 이상의 약사로 구성된 팀을 통한 전문성을 가장 부각시키고 있으며, 2020년 기준, 550만 명의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30,000건에 이르는 제품 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프라인 약국과는 달리 경우에 따라 20~30%에 이르는 제품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포인트 적립 등의 고객관리 톨 또한 잘 정립되어 있다.

5) Mediamarkt(www.mediamarkt.at)

○ 개요: 유럽 내 1,000개 이상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전자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리테일러 Media Markt에서 오스트리아 시장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경쟁업체 대비 잘 발달한 오프라인 유통 인프라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유기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 규모, 고용인원: 모기업은 1979년 독일에서 설립되었으며, 오스트리아 현지법인인 1990년 설립되었다. 2020년 현재 총 52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는 71.9억 달러, 고용인원은 2,90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종합 전기·전자제품 판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외에 다양한 구색의 PB 브랜드도 생산·판매하고 있다.

○ 특징: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결을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을 수 있으며, Amazon 등 경쟁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저가 프로모션을 연중 상시로 운영,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지사화 서비스 가입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 효율 최적화

P사는 산업용 스위치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국내 대기업에의 안정된 납품 실적 및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산업 분야뿐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분야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M사와는 첫 만남 이후 지속적인 제품 공동 개발 노력 끝에 마침내 차량용 사이드미러용 센서를 납품하기에 이르렀으며, 2020년(2021년 기준 최신자료), 500만 유로 규모의 물량을 납품하고 있다.

이러한 안정적 수출 기반 구축에는 빈 무역관 지사화 서비스 가입을 통한 무역관의 지원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유럽 시장 진출이 처음인 P사의 입장에서 현지 시장 정보 및 바이어 성향 파악, 수출입 실무 및 현지 출장 시 다각적인 지원 등이 오스트리아 M사와의 신뢰 관계 구축 및 확대에 큰 도움이 되었다.

2) 현지 시장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진출 전략 수립이 성공 비결

S사는 차량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현재 오스트리아 시장에 연간 약 1천만 유로어치의 관련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사의 성공 요인을 간단히 요약하면, 오스트리아 현지 생산 대비 20~30%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약 1년간에 걸친 제품 테스트 끝에 유럽 제품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입증하는 데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차량용 배터리 시장은 제품의 인지도가 구매의사 결정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TOP 3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여건에 맞춰 자사 브랜드를 고집하고 않고, 현지 시장 선두업체에의 OEM 방식 납품을 통해 시장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자동차 관련 부품의 경우,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테스트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S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해 진출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사전에 감안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도 성공 요인 중의 하나이다. 전술적으로는 현지 시장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S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업체들과의 초기 네트워킹 형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는데, 이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는 관련 제품 전시회에 적극 참가 또는 참관한 것이 큰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현대차 등에 납품한 레퍼런스가 첫 미팅에서 만난 현지 업체에 제품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쉽게 인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3) 현지 우수기술력 보유업체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L사는 2018년 4월 26일 오스트리아의 글로벌 차량용 헤드램프 제조업체인 ZKW 인수에 성공했다. L사는 ZKW사의 지분 70%를 7억 7천만 유로에 인수하는 계약 체결 후, 나머지 30%(3억 3천만 유로)도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총 11억 유로(1조 4천억 원)에 ZKW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ZKW사 인수 건은 2016년부터 시장에 알려졌다는데, 당시 일본의 Panasonic社가 10억 유로를 제안했으나 최종 인수에 실패했으며, 2017년 들어 L사가 유력 매수자로 등장했으나 2018년 초 인수 협상 결렬 소식이 보도되는 등의 과정을 겪은 끝에 마침내 4월 26일 최종 인수 합의에 도달했다.

ZKW사는 프리미엄급 차량용 헤드램프 전문 제조업체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LED 주간주행 램프, 레이저 헤드램프와 같은 차세대 광원을 탑재한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포함 세계 여러 곳에 총 8곳의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2개(Wieselburg, Wiener Neustadt) 이외에 슬로바키아, 체코, 중국, 인도, 멕시코, 미국 등이다. Audi, BMW, GM, Porsche, Benz, Opel, Rolls-Royce, Scania, VW 등 완성차 업체들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본사에 4백 명이 넘는 고급 인력들이 R&D 부문에 종사하면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선두 업체 중 하나이다.

이번 인수는 두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이다. ZKW사는 글로벌 기업인 L사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L사는 60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ZKW 인수를 통해 자동차 부품 사업의 포트폴리오 강화는 물론 차세대 융복합 제품 개발 등을 통한 미래 자동차 부품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4) 현지 투자유치기관을 활용한 현지 법인 설립

V사는 가상 및 증강현실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는 스타트업으로,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유럽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현지 법인 설립 계획을 추진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해외 법인 설립 등과 관련한 노하우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에, 빈 무역관예의 문의를 통해 법인 설립 관련 기초 정보를 얻고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산하의 투자유치 기관인 ABA를 소개받아 초기 단계부터 법인 형태, 법무 법인 등 다양한 창업 관련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초기 정보 수집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연락사무소 형태의 진출을 고려했으나 ABA의 권유로 해외 지점 형태의 설립으로 변경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9년 이내에 법인 설립 마무리라는 당초 목표가 늦어지면서 결국 2020년 5월 지점 형태의 오스트리아 현지 법인 설립을 이뤄낼 수 있었다(원래는 2020년 초 완료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몇 달의 시간이 더 지연되었음). V사의 오스트리아 지점은 마케팅 활동 이외에 리서치 센터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5) 오스트리아 & 스위스 시장진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H사는 기존 독일 법인에서 중앙유럽을 관할해왔으나, 현지 고객의 니즈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력 파견 후 2020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스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동유럽과도 인접해 있어 유럽시장 내 전략적 확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6) 오스트리아 및 중동부유럽 시장 기회 극대화를 위한 현지법인 운영 확대

한국계 물류포워딩 업체인 P사는 중동부유럽 물류허브로서의 오스트리아 입지기회를 발판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2021년 신임 법인장을 중심으로 현지법인 운영 확대 기회를 모색중이다. 이로써 동사의 주요 사업 분야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련 물류 비즈니스가 큰 탄력을 받아 물동량 증대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코로나19 사태로 한-오 간 사증면제협정이 잠정 중단되고 EU 차원의 역외 국경통제 조치가 발표되기도 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오스트리아 입국법령상 안전국가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국민은 '20년 9월 28일부 무비자 입국이 다시 가능해진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0.9.28 (월)부로 한국을 오스트리아 입국법령상 안전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한-오스트리아 간에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의해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가 면제된다. 장기 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제3국 또는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한 후 사정에 의해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체류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비자 연장은 이미 허가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늦어도 비자 만료 4주 전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장기 체류 목적의 비자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RWR(Rot-Weiss-Rot) 카드 : 외국 우수인력 유치 목적으로, 캐나다의 점수 제도를 본떠 만든 취업 비자

o 해당 인력군

- 특수분야 고급전문인력
- 인력부족분야 전문인력
- 오스트리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 스타트업 창업자
- 자영업 핵심인력
- 기타 핵심인력

o 신청자격(인력군에 따른 별도의 조건 부과)

[상기 해당 인력군 구분에 의거, 기타 핵심인력에 해당할 경우]

- 세전 월급여 30세 이상 3,330유로, 30세 미만 2,775유로 이상
- 항목별 취득 점수 합계 55점 이상

o 필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 유효한 여권
- 출생증명서
- 사진(45x35m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보험가입 증명서
- 현지 거주 관련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 고용 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등
- 취득 점수 관련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어학능력증명서 등

o 최초 기간 1년 6개월(최대), 이후 비자 기간 연장 갱신 가능

o 비용(신청비, 발급비, 기타 수수료 등): 160유로

o 링크: <https://www.migration.gv.at/en/types-of-immigration/permanent-immigration/other-key-workers/>

2) ICT(Intra-corporate Transfer) 비자: 외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을 위한 비자

o 신청자격

- 외국에 본사를 둔 외국 법인의 오스트리아 현지 법인 파견 인력
- 오스트리아 파견 전 본사 근무 기간 최소 9개월 이상

o 필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 유효한 여권
- 출생증명서
- 사진(45x35m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보험가입 증명서
- 현지 거주 관련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 고용 관련 서류: 고용계약서, 오스트리아 파견 관련 문서 등
- 업무경력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등

o 비자 기간 최대 3년. 이후 추가 기간 연장 불가능

o 비용(신청비, 발급비, 기타 수수료 등): 160유로

o 링크: <https://www.migration.gv.at/en/types-of-immigration/fixed-term-employment/ict/>

3) 학생 비자(대학생)

o 신청자격

- 오스트리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비자

o 필요 서류(신청서 첨부 서류)

- 유효한 여권
- 출생증명서
- 사진(45x35m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보험가입 증명서
- 현지 거주 관련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 학력 관련 서류: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오스트리아 대학 입학허가서 등

o 링크 : <https://www.migration.gv.at/en/types-of-immigration/temporary-residence/>

4) 기타: 동반 비자

o 앞의 세 가지 비자 모두 동반 가족을 위한 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면세품 한도

- 술(만 17세 이상)
 - 1리터: 알코올 및 알코올 함량 22%(용량백분율) 초과 음료. 또는 80% 이상의 비변성 에틸알코올
 - 2리터: 알코올 함량 22%(용량백분율) 혹은 이러한 제품들의 혼합비율 그리고 첨가를 초과하지 않는 알코올 혹은 알코올음료
 - 4리터: 非스파클링 와인
 - 16리터: 맥주
- 담배(만 17세 이상)
 - 담배(궤련) 200개비 또는 시가(엽궤련) 50개비 또는 시가릴로(소형 엽궤련, 각각은 최대 3g 이하의 무게) 100개비 또는 잎담배 250g

- 향수
 - 향수 50g
 - 화장수 0.25리터
- 의약품
 - 여행 기간에 필요한 양

- 그 외 품목
 - 1인당 430유로(항공 또는 선박 여행 시), 300유로(육로 여행 시)
 - 1인당 150유로(15세 미만)

- 식품
 - 조류, 가공류, 조류가공 식품, 달걀을 비롯한 조류 알 반입 금지
 - 고기류, 우유의 경우 송장 첨부
 - 꿀, 생선류, 조개류의 경우, 1kg 이하 반입 가능

- 외국환 신고: 1만 유로 이상 현금, 유가증권(3자 양도 가능 수표 등) 등을 휴대 반입하는 경우
 - * 2007년 6월 15일부터 시행. 돈세탁 행위 등과 더불어 테러 관련 지원금 조달과 같은 불법적인 금융거래 방지 목적

2) 반입 불허 품목

- 불법 마약류
- 허가 없는 무기류
- 오스트리아 및 EU 회원국이 위생상 사유로 반입 금지한 동물성 식품(가공식품 포함), 식물(포도나무, 감귤나무, 분재 등). '국제 야생 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에 속한 동식물(상아, 산호세공품, 난조 등).

3)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EU가 아닌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는 해당 동물에 대한 아래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동반 입국이 가능하다.

-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 보유
- 광견병 예방접종 완료
- 의사의 광견병 여부 검사 증명서 (검사 결과 채취 혈액 샘플에서 0,5 IE/ml 이상의 항체 확인)
- 건강확인서 (아래 링크를 통해 샘플 양식 확인 가능)
- *건강확인서 샘플 (영어 또는 독일어로 표기):

<https://www.sozialministerium.at/Themen/Gesundheit/Reiseinformationen/Reisen-nach-%C3%96sterreich/Einreise-und-Wiedereinreise-mit-Heimtieren-aus-Drittstaaten-nach-%C3%96sterreich.html>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43-1-478 1991
주소	Gregor Mendel Strasse 25, 1180 Wien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at-ko/index.do

◦ 오스트리아 한인회

전화번호	+43-1-263 1198
주소	Arbeiterstrandbadstrasse 122, Pavillon am Irissee, 1220 Wien
홈페이지	http://www.korean.at/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총리실(Kanzleramt)

전화번호	+43-800 222 666
주소	Ballhausplatz 2,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ww.bundeskanzleramt.gv.at/

◦ 디지털/경제부(Ministry of Digital and Businesslocation)

전화번호	+43-1-71100-0
주소	Stubenring 1,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ww.bmdw.gv.at/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전화번호	+43-50-233 765
주소	Johannesgasse 5,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ww.bmf.gv.at/
------	---

◦ 연방 상공회의소(WKO: Wirtschaftskammer Oesterreich)

전화번호	+43-5-90 900-3175
주소	Wiedner Hauptstrasse 63, 1045 Wien
홈페이지	https://www.wko.at/

◦ 연방 투자유치청(Austria Business Agency)

전화번호	+43-1-588 58-0
주소	Opernring 3, 1010 Wien
홈페이지	https://investinaustria.at/en/

◦ 오스트리아 R&D 진흥청(FFG)

전화번호	+43-57 7550
주소	Sensengasse 1, 1090 Wien
홈페이지	https://www.ffg.at/
비고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산하, R&D 활동 진흥 기관

◦ 연방 투자개발은행 (AWS)

전화번호	+ 43-1- 501 75-0
주소	Walcherstraße 11A, 1020 Wien
홈페이지	https://www.aws.at
비고	오스트리아 내 회사 설립 지원, 스타트업 등을 위한 보조금 및 대출 형식의 펀딩 제공

◦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Wirtschaftsagentur Wien)

전화번호	+43-1-4000 86 70
주소	Mariahilfer Strasse 20, 1070 Wien
홈페이지	https://wirtschaftsagentur.at/
비고	수도 빈의 투자유치 및 스타트업 진흥 담당 기관

◦ 보건복지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Health, Care and Consumer Protection)

전화번호	+43 800 201 611
주소	Stubenring 1, 1010 Wien
홈페이지	https://www.sozialministerium.at/en
비고	보건, 복지, 소비자보호 총괄 정부부처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조치 업데이트)

◦ 데어 슈탠다드(Der Standard)

전화번호	+43-1-53170-0
주소	Vorderen Zollamtsstraße 13, 1030 Wien
홈페이지	https://www.derstandard.at/
비고	중도 좌파 성향의 일간지

◦ 디 프레세(Die Presse)

전화번호	+43-1-51414-0
주소	Hainburger Strasse 33, 1030 Wien
홈페이지	https://diepresse.com/
비고	보수계 일간지 중 가장 권위 있는 신문

◦ 쿠리어(Kurier)

전화번호	43 5 9030
주소	Leopold-Ungar-Platz 1, 1190 Wien
홈페이지	https://kurier.at
비고	자유주의 성향의 일간지(liberal)

◦ 오스트리아 연합통신(A.P.A)

전화번호	+43-1-36060
주소	Laimgrubengasse 10, 1060 Wien
홈페이지	https://www.apa.at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0.82유로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99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6.94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6.940
4	식품	신라면	1봉지	1.33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Tall)	1잔	4.13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60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520
8	의료	항생제	12정	15.86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920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920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4.62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36.58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1.36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12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14.51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6.71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17.070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월, 세전 기준)	1829.28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6292.660
20	금리	장기금리(중앙은행 발표)	%	0.080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원래 화폐 단위는 실링(Schilling)이었으나 유럽 화폐 동맹(EMU) 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공식 통화이다. 유럽 화폐 동맹 참가국으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Euro화와 실링이 같이 통용됐다. 약자는 Euro, 독일어 발음은 유로가 아니라 '오이로'이다. 1Euro는 100 Cent(센트)에 해당한다. - 주화 종류: 1, 2, 5, 10, 20, 50 Cent, 1, 2 Euro - 지폐 종류: 5, 10, 20, 50, 100, 200, 500 Euro* *500유로 지폐는 2019년 4월 26일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다
------	---

환전방법

외환 소유 및 환전 액수에 전혀 제한이 없다. 시내 은행에서 제3국 지폐를 환전하면 환전 금액의 1.5~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환전소 또는 호텔에서는 대개 5~7%의 환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 지폐가 환전 가능한데, 한국 지폐는 Die Erste Bank 은행의 본점에서만 환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율을 매우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한국 지폐는 가능하면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환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오스트리아 현지 계좌 및 체크카드 보유 시, 은행 카운터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EU국 내 대부분의 은행 ATM기에서 더 저렴한 수수료로 환전이 가능하다. -Bank Austria-

신용카드 이용

관광지 및 대형 상점, 대형 식당이 아닌 일반 상점이나 중소 규모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현금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현지 은행의 직불카드(Bankomat 카드) 사용이 일반적이므로, 현지 상점 또는 식당 이용 시 사전에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매장/식당 중 일부는 간혹 10유로 이하의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가 필요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오스트리아는 교통 관련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추어진 국가로, 특히 수도 비엔나의 경우 버스, 트램, 지하철 등으로 이루어진 대중교통망이 매우 발달해 있어 대중교통만을 이용해도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출퇴근 시간대에 해당하는 7시에서 8시 사이, 17시에서 18시 사이의 시간대를 제외하면 도로 정체가 심하거나 대중교통 수단이 인파로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것이 흔치 않을 정도로 시내 교통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그 외 특히 금요일 이른 오후부터 퇴근하는 관행이 있어 주말 전후는 차량정체를 간혹 느낄 수 있다.

버스

1) 대중교통 수단

각 지역마다 시내 공공 교통망이 잘 발달해 있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트램(전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러시아워에도 그리 붐비지 않는다.

- 비엔나 버스 노선도: <https://www.stadt-wien.at/wien/oeffentl-verkehrsmittel/busfahrplan.html>

2) 대중 교통 수단 승차권 사용 방법

개찰기계(버스, 트램의 경우 자동차 내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탑승의 경우 지하철역 개찰구에 설치돼 있음)에 승차권을 삽입하면 승차권에 탑승 시간과 탑승 노선이 기재되는데 개찰은 한 번만 하면 된다. 1회용 승차권은 편도용이지만 동 승차권으로 목적지에 당도할 때까지 트램(전차), 지하철,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여러 번 바꿔 탈 수 있다.

단,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는 새로운 표로 다시 개찰해야 한다. 가끔 검표원이 탑승해 승차권의 개찰 여부를 조사하며 무임승차 또는 개찰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105유로(지로용지로 2주 내 납부 시 115유로, 이후 납부 시 145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대중교통 수단 승차권 구입 방법(2018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요금 적용)

트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이나 Tabak이라고 쓴 상점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동 승차권은 구입한 도시 내에서만 유효하다. 1회용 승차권은 비엔나의 경우 전차, 버스 안에서도 동전 자동판매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나 판매소에서 구입한 경우(2.4유로)보다 비싼 2.6유로를 지불해야 한다.

이외에 아동/노약자용(1.2유로), 24시간용(8.0유로), 48시간용(14.1유로), 72시간용(17.1유로), 8일권(40.8유로), 1주일권(17.1유로), 1개월권(51.0유로) 등이 있는데, 가격 및 효용 면에서 1회용 승차권은 여타 승차권에 비해 가장 불리한 만큼, 여행 기간에 따라 적절한 승차권이 구입이 요구된다.

택시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나 요금이 비싼 편이다. 한국과는 달리 거리에 다니는 빈 택시를 잡기는 어려우므로, 택시 회사에 전화하거나 대로 주변에 있는 택시 전문 정차장(Taxi-Stand)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 대표적 비엔나 택시 회사 전화번호: 40100, 601600, 313000, 1715, 814000

주소는 도로를 따라 순번 체계로 나열돼 있으며, 도시별로 지도가 잘 작성돼 있으므로 택시 기사에게 정확한 주소만 알려 주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택시 기본요금은 3.90유로(06:00~23:00, 야간에는 4.30유로)이며, 빈 시내에서 이용 시 보통 10~20유로 정도의 요금이 나온다. 전화로 택시를 부른 경우, 10kg 이상의 짐이 있는 경우, 그리고 22시 이후에 탑승한 경우에는 택시 요금에 2.80유로의 할증료가 추가된다.

오스트리아는 빈 등 대도시의 경우 승차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Uber, Bolt 등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앱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한 후 회원가입하고 신용카드 또는 PayPal 계정을 등록하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 시간 5분 미만이며, 택시 요금 대비 10~20% 정도 요금이 저렴하다.

지하철/트램

비엔나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 또는 출장자의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지하철이나 트램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더욱 편하다. 각각의 노선도는 다음과 같다.

◦ 트램 노선도: <https://www.stadt-wien.at/wien/oeffentl-verkehrsmittel/strassenbahnen-in-wien-fahrplaene-aller-linien.html>

◦ 지하철 노선도: 호선별 노선도(<https://www.stadt-wien.at/wien/oeffentl-verkehrsmittel/u-bahn-wien-u-bahn-plan-fuer-alle-linien.html>)

전체 노선도(https://www.stadt-wien.at/fileadmin/user_upload/content/Medien_-_PDF/U-Bahn/September_2017/U-BahnNetzplan.pdf)

다. 통신

핸드폰

이동통신 사업자 중 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 근처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여권), 거주등록증(Meldezettel) 등이다.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 충전카드는 가입이 필요 없고, 상점에서 USIM 카드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후불방식보다는 분당 통화요금이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정기사용료 지불 방식은 통화시간, SMS 개수, 인터넷 데이터 용량 등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가 존재하는데, 보통 월 20~40유로 정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주요 이동통신업체로는 A1, Magenta(舊T-Mobile), Drei(3) 등이 있다.

◦ Telekom Austria: www.a1.net

◦ Magenta(舊T-Mobile): www.magenta.at

◦ Drei(3): www.drei.at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오스트리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선통신 또는 케이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무선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Router)가 그것이다. 유선 또는 케이블 사업자 제공 서비스의 경우 신청에서 설치까지 약 1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지만, 무선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에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2년 정도의 의무가입 기간이 약정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에 약정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유선 또는 케이블 사업자

- Telekom Austria: www.a1.net

- Magenta(舊UPC Telekabel): www.magenta.at

◦ 무선통신 사업자

- Telekom Austria: www.a1.net

- Magenta(舊T-Mobile): www.magenta.at

- Drei(3): www.drei.at

라. 관광명소

◦ 슈테판 대성당(Stephansdom)

도시명	비엔나
주소	Stephansplatz 3, 1010 Wien
운영시간	월~토: 6시~22시 일, 공휴일: 7시~22시
휴무일	연중 무휴 (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명소소개	오스트리아 최고의 고딕 양식 건축물로 '빈의 상징', '빈의 혼'으로 불린다.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137m의 첨탑이 솟아있고, 사원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안톤 필그림이 조각한 국보급의 설교단, 그 오른쪽 뒤에는 프리드리히 3세의 무덤이 있다. 북탑 입구 옆에 있는 지하 묘지 카타콤베에는 오스트리아 역대 황제의 화장한 유골과 내장이 분리되어 수납된 항아리와 흑사병으로 죽은 2,000여 구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비고	전화 : +43-1-51552 3767 홈페이지 : http://www.stephanskirche.at/

○ 쾨벤브룬 궁전(Schoenbrunn Palace)

도시명	비엔나
주소	Schöenbrunner Schloßstraße 47, 1130 Wien
운영시간	4. 1.~6.30.: 8시~17시 30분 7. 1.~8.31.: 8시~18시 30분 9. 1.~10.31.: 8시~17시 30분 11. 1.~3.31.: 8~17시
휴무일	연중 무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명소소개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이다.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의 명으로 1744~1749년에 건축되었으며, 현관 건물, 중앙 건물, 글로리에떼(대 프러시아 전쟁 승리 기념탑), 아름다운 정원과 숲(총 18km)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전 내에는 로코코 양식으로 장식된 1,441개의 방이 있는데, 41개만이 일반 공개되고 있다. '백만금의 방'은 붉은 장미 목재와 금세공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대무도 회장'은 국빈 접대시 사용한다. '거울의 방'은 모차르트가 6세 때 마리아 테레지아 여황제 앞에서 연주하였던 곳으로 유명하며, 후에 모차르트가 마리 앙투아네트 공주에게 청혼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비고	전화: +43-1-811 13-0 홈페이지: https://www.schoenbrunn.at/

○ 벨베데레 궁전(Belvedere Palace)

도시명	비엔나
주소	Prinz Eugen-Strasse 27, 1030 Wien
운영시간	월~목, 주말, 공휴일: 9~18시 금요일: 9~21시
휴무일	연중 무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명소소개	오스만 터키와의 전쟁에서 빈을 구한 영웅, 오이겐 왕공의 여름 별궁이다. 上宮(Oberes Belvedere)과 下宮(Unteres Belvedere)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 에는 분수와 바로크 풍의 정원이 펼쳐져 있다. 상궁은 현대 미술관으로, 하궁은 고대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이겐공이 죽은 후 이 궁전은 합스부르크가의 소유가 되었으며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함으로써 제1차 세계 대전의 빌미가 된 페르디난드 황태자가 거주했다.

비고	전화: +43-1-795 57-0 홈페이지: https://www.belvedere.at/
----	---

◦ 국립 오페라 극장(National Operahouse)

도시명	비엔나
주소	Opernring 2, 1010 Wien
운영시간	가이드 투어: 월~일(사전 체크 필요) https://www.wiener-staatsoper.at/ihr-besuch/fuehrungen/
휴무일	7, 8월 휴관(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명소소개	1869년 궁정 오페라극장으로 세워진 르네상스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는 로코코 양식이다. 파리, 밀라노 극장과 더불어 유럽 3대 오페라극장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공연일수가 많다(7, 8월 휴관).
비고	전화: +43-1-514 44-2250 홈페이지: https://www.wiener-staatsoper.at/

◦ 왕궁(Hofburg)

도시명	비엔나
주소	Michaelerkuppel, 1010 Wien
운영시간	9. 1.~6.30.: 9시~17시 30분 7. 1.~8.31.: 9~18시
휴무일	연중 무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명소소개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성은 16~18세기에 세워진 Alteburg와 19~20세기에 세워진 Neuburg로 이루어져 있는데 Alteburg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 Neuburg(새 왕궁)에는 민속박물관 및 왕가의 무기와 악성들의 피아노를 전시한 박물관이 있다. 또한, 왕궁에서는 스페인식 승마 학교, 주일 미사 때마다 빈 소년 합창단이 성가를 부르는 왕궁 예배당, 신성 로마 제국의 보물을 전시하고 있는 보석 박물관(Schatz kammer)도 볼 수 있다(월요일 휴관).
비고	전화: +43-1-533 7570 홈페이지: https://www.hofburg-wien.at/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휘글물러(Figlmüller)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12 6177
주소	Wollzeile 5, 1010 Wien

가격	18~25유로
영업시간	11시 30분~23시 30분
휴무일	일요일(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오스트리아 대표 전통 음식인 슈니첼(Schnitzel) 전문 식당이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 그리헨 바이즐(Griechenbeisl)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33 1977
주소	Fleischmarkt 11, 1010 Wien
가격	13~25유로
영업시간	11시 30분~23시 30분
휴무일	연중 무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비엔나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5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유명인들이 식사하고 벽에 사인한 방이 있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 피아리스텐 켈러(Piaristenkeller)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406 0193
주소	Piaristengasse 45, 1080 Wien
가격	15~30 유로
영업시간	18~24시(일요일 휴무)
휴무일	연중 무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중세풍의 고급식당으로 옛날 와인 저장소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만든 곳이다. 오후 7시 반부터 오스트리아 전통 악기인 시터(Citer, 하프와 기타의 중간 형태 악기) 연주가 있어서 매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 플라후타(Plachutta)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12 1577
주소	Wollzeille 38, 1010 Wien
가격	18~30유로
영업시간	11시 30분~24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오스트리아 전통 쇠고기 요리 전문점으로, 대표 메뉴는 타펠슈피츠(Tafelspitz)이다. 양질의 소고기를 계약 목축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정치인들이 애용하는 식당이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 슈타이러 에크(Steirereck)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713 3168
주소	Am Heumarkt 2A, 1030 Wien
가격	단품 요리 25~50유로 정식(4종~7종) 110~185유로
영업시간	8~23시 (토: 9~19시, 일: 휴무)
휴무일	일요일 휴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귀족적 분위기의 고급 식당으로, 각종 오스트리아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부가세 포함). 팁은 통상 음식가격의 5~10%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한국식당

○ 김치(Das Kimchi)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713 3734
주소	Maxergasse 15, 1030 Wien
가격	16~20유로
영업시간	11~15시 18~23시
휴무일	연중 무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고급 한식당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찌개류, 밥, 볶음, 고기 등.

◦ 코코스(Kokos)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0676 5231412
주소	Franz-Hochedlinger-Gasse 2, 1020 Wien
가격	10~16유로
영업시간	12시~14시 30분 18시~22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와 편안한 분위기를 갖춘 한식당.

◦ 상상(舊한일관)(Sang Sang)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87 7941
주소	Gumpendorferstrasse 14, 1060 Wien
가격	14~19유로
영업시간	12시~14시 30분 18시~22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휴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한식당으로, 특히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으로 유명하다.

◦ 샤부샤부(Shabu Shabu)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57-333-789
주소	Stumpfergasse 27, 1060 Wien
가격	14~19유로
영업시간	11~15시 18~23시
휴무일	일요일 휴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고급 한식당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특히 메뉴 중에 샤부샤부가 포함되어 있다.

◦ 수라(Sura)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1-512- 8426
주소	Singerstrasse 13, 1010 Wien
가격	17~51유로
영업시간	11시30분~23시
휴무일	연중 무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고급 한식당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수라상 세트(2인 기준 65달러), 감자탕 등이 특색 메뉴

◦ 요리(Yori)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43-57-333 777
주소	Wiesingerstrasse 8, 1010 Wien
가격	17~21유로
영업시간	11~16시 18~23시
휴무일	연중 무휴(코로나19 정책 확인 필수)
소개	다양한 한식 메뉴를 갖춘 고급 한식당으로, 손님 접대용으로 좋다. 찌개류, 밥, 볶음류 및 고기 메뉴 등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호텔 아나나스(Hotel Ananas)

도시명	비엔나
주소	Rechte Wienzeile 93-95, 1050 Wien
전화번호	+43-1-54620
홈페이지	https://www.austria-trend.at/de/hotels/ananas?usercampagne=addirekt&gclid=Cj0KCQjA_s7fBRDrARIsAGEvF8TwPKvEm1CiCWU-MneYBS7I7WMvNv_Q2go8sjNAvZFUwRU06gUNvovAvQ5EALw_wcB
숙박료	120~140유로(클래식 룸, 조식 불포함)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빈 시내 중심지에 있다.

○ 호텔 아나톨(Hotel Anatol)

도시명	비엔나
주소	Webgasse 26, 1060 Wien
전화번호	+43-1-59996
홈페이지	https://www.austria-trend.at/de/hotels/anatol?usercampagne=addirekt&gclid=Cj0KCQiA_s7fBRDrARIsAGEvF8SW3jsW1DyPDbOo3ScbQPXNhGFIU5rFhUxb6AYIkEAsltwVHJyIQWYyAia7EALw_wcB
숙박료	120~140유로(클래식 룸, 조식 불포함)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빈 시내 중심지에 있다.

○ 호텔 아르코텔 빔베르거 빈 (Hotel Arcotel Wimberger Wien)

도시명	비엔나
주소	Neubaugürtel 34-36, 1070 Wien
전화번호	+43-1-521650
홈페이지	https://wimberger.arcotel.com/en/
숙박료	100-120유로(스탠다드 룸, 조식 불포함)
소개	비엔나 기차역(서역)에서 가까운 호텔로, 비즈니스 출장자 및 컨퍼런스용 호텔이다. 호텔 플레밍스 바로 옆에 위치한다.

○ 호텔 플레밍스 (컨퍼런스 빈)(Hotel Flemings (Conference Wien))

도시명	비엔나
주소	Neubaugürtel 26-28 - A, 1070 Wien
전화번호	+43-1-227370
홈페이지	https://www.flemings-hotels.de/conference-hotel-wien
숙박료	95~110유로(스탠다드 룸, 조식 불포함)
소개	비엔나 기차역(서역)에서 가까운 호텔로, 비즈니스 출장자 및 컨퍼런스용 호텔이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 비엔나 소미네 집(비엔나 소미네 집)

도시명	비엔나
주소	Margaretengürtel 46/7, 1050 Wien
전화번호	+43 676 383 3986
홈페이지	http://www.viennasomine.com/
숙박료	110유로(2인실)
소개	비엔나 서역 및 무역관에서 가까운 민박집.朝食 제공.
비고	카카오톡 ID: viennasomine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주·야간 모두 매우 양호하다. 스위스와 더불어 서유럽 국가 중 가장 안정된 편에 속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즉 시장이나 박람회에 는 간혹 동유럽이나 이탈리아에서 원정 나온 소매치기들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강력 사건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 오스트리아의 각 지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의 소지품 도난 및 분실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른 국가와 연결하는 기차역 및 다른 국가로부터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기차 내부에서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차 이용 시 소지품 도난에 각별한 유의가 요망되며, 야간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혼잡한 지역(기차 및 버스역, 유명 관광지, 시내 카페테리아 등)에서 친절하게 길 또는 관광지를 설명해주는 척하면서 2인 1조의 소매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소지품은 항상 자기 자신의 신체에 붙어있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020년 11월 2일 빈 시내 중심지에서 IS와 관련이 있는 테러리스트의 총격으로 4명 사망,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오스트리아는 이전에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판단됐으나, 동 테러로 정부 당국도 안보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래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플랫폼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치안상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

http://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163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한다.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때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43-1-478 1991)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여권 재발급 사유서 또는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12.50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2~3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5.81유로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 전화번호

- 화재 신고: 122
- 범죄 신고: 133
- 의료: 응급환자 144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집 구하기

○ 집 구하기

- 인터넷을 통해 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업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매물을 내놓거나, 직접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 대표적인 부동산 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www.willhaben.at

www.immowelt.at

www.immobilienscout24.at

www.immodirekt.at

- 부동산업자에게 문의 시 요구에 맞는 매물을 찾아준다.

www.kalandra.at

○ 임차 방법

- 부동산 업자를 통한 계약 또는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 계약 방법이 있다. 부동산업자를 통한 계약 시 주택 소개료(복비)가 월 임차료의 2~3개월에 달하는 등 별도의 부담을 해야 한다. 계약 기간에 따라 중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 계약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문광고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임대주와 협의해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나, 한국인 취향에 맞는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임대료

-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방미터 당 10~20유로 정도이다. 입주 계약 시 임대 보증금으로 월 임대료의 2~3배를 지불한다. 해당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 주택 손상분을 제외하고는 반납받을 수 있다.

○ 입주의 난이도

- 부동산을 통해 주택을 구할 경우 어려운 점은 없으나 소개비가 비싸며, 개인적으로 구할 경우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 임차계약 해지 시 빈발하는 문제

- 임대계약 시 지불한 보증금(Kautiön)에 대해 임대물의 손상을 이유로 전액 환불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임대계약 시 계약서를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물을 입주 전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로 돌려줄 것을 명시하는 조항도 있음). 모든 비품 및 시설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Kautiön)에서 공제하게 돼 있으므로, 입주 전 가구 등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비품 및 주택 내부 상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계약 종료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 임차계약 만기 이전에 임차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통고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계약서에 준하며, 보통의 경우 3달 이전에 통보해야 함). 해약은 3개월 전에 미리 구두 및 문서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 합의가 필요하다. 문서상으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없는 것이며, 보증금은 월세로 대체하겠다는 임차인의 의도가 있으면 이것도 문서상으로 알려야 한다.

-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계약과 해약은 문서상으로 성립돼야 법적으로 유리하다. 집 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Vollmachtbestätigung) 또는 Auftragsbestätigung 및 중개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외국인 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1인당 최소한 10제곱미터가 확보돼야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의 경우 최소한 30제곱미터 이상 되는 집을 얻어야 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주택보험 의무 : 계약서 상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누가 주택보험 가입의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에 집주인이 가입했다는

문구가 있으면 가장 좋으나, 보통 세입자가 별도로 들게 되어 있다.

2) 주거등록 절차

집을 구하고 나면 가까운 구청의 주거등록과(Meldeservice im Magistratischen Bezirksamt)로 가서 주거등록을 해야 하는데, 각 구청 주거등록과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www.wien.gv.at/verwaltung/meldeservice/stellen.html>

주거등록을 위해서는 여권과 사진 2매 그리고 주거등록 서식이 필요한데, 주거등록 서식(Meldezettel, 멜데 제텔)은 각 구청의 주거등록과에 비치돼 있고, 웹사이트(<https://www.help.gv.at/Portal.Node/hlpd/public/resources/documents/meldezettel.pdf>)를 통해 직접 다운받을 수도 있다.

전화

오스트리아에서 유선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크게 2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최대의 통신사업자인 A1 Telekom Austria와 최대 케이블 채널 사업자인 Magenta(舊UPC Telekabel)이다. 이들 중 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집 근처 가까운 대리점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여권), 거주등록증(Meldezettel) 등이고, 통상 신청 후 설치까지 1~2주가 소요된다. 보통 유선전화와 인터넷, TV 채널 등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이 일반적이고 요금도 개별적으로 설치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 A1 Telekom Austria: www.a1.net

- Magenta(舊UPC Telekabel): www.magenta.at

전압/플러그

전압은 230V, 주파수는 50Hz이며 플러그는 중부 유럽 방식(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2구 콘센트이다. 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이다. 한국에서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Hz/60Hz 겸용이 아닌 경우, 현지에서 사용한다면 오래 쓰지 못하고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 전자제품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으나,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식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의 경우에는 알프스 수원의 물이 수돗물로 공급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식수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수돗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는데, 다만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와 부르겐란트 주를 여행할 경우 미네랄 워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곳은 알프스 지역이 아니어서 강물을 정수해 사용하는데 석회가 많이 섞여 있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식당(한국 식당 포함)에서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음료수를 주문하는 것이 예의이다. 음료수 가격을 고려해 음식값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Tap water 요구 시 수돗물을 식수로 무료 제공하며 보통 수돗물 외에 음료 또는 술 한잔을 기본으로 주문한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오스트리아의 연간 자동차 신차 시장의 규모는 35만 대 수준이며('20년 353,179대), 신차의 경우 Mercedes Benz, BMW, Volkswagen, Audi, Opel 등의 대리점을 통해서만 유통되므로, 몇 군데 대리점을 접촉해 보고 가격 및 옵션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

다. 전반적인 가격은 한국에서 구입할 경우보다 비싼 편이다. 특히 한국과 비교해 기본 옵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 무척 많으므로,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고차 구입 시에는 직거래보다는 가격이 다소 높으나 1년 또는 2년의 중고차 개런티를 부여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정 및 품질의 보장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중고차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www.car4you.at와 같은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차종 관련 사전 정보를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타 차량과 관련한 일반 정보는 오스트리아 자동차/오토바이 클럽 사이트(www.oeamtc.at)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차량가격

오스트리아에서는 차량 구입 및 보유와 관련해 두 가지 세금(부담금)이 발생하는데, NoVA(차량 환경부담금) 및 자동차세가 그것이다. NoVA는 자동차 구입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CO₂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차량구입 후 보유 시 5년 동안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 엔진의 출력에 따라 부과된다.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NoVA

CO₂ 배출량이 90g/km까지 0%이며, 90g/km를 초과할 경우 실제 배출량과 90과의 차이를 5로 나눈 수치가 부담해야 할 NoVA 적용률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로 구입한 차량의 CO₂ 배출량이 150g/km일 경우 150과 90의 차이인 60을 5로 나눈 수치 즉 12%의 NoVA가 적용됨으로써 차량 구입가격의 12% NoVA를 차량 구입 시 납부해야 한다. NoVA의 최고 적용률은 32%이다. 즉, CO₂ 배출량이 250g/k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동일한 세율의 NoVA가 적용된다.

◦ 자동차세

- 엔진 출력 24KW 이하: 0
- 엔진 출력 24KW 초과 90KW 이하: 0.682유로(KW, 월)
- 엔진 출력 90KW 초과 110KW 이하: 0.726유로(KW, 월)
- 엔진 출력 110KW 초과: 0.825유로(KW, 월)

운전면허 취득

1) 구분

◦ 한국인 여행자

- 오스트리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 한국인 거주자(유학생 포함)

-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 이 경우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일정 조건을 갖추어 교환이 가능하나, 그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로 주행 시험을 거쳐야 한다.

2) 운전면허 교환

1997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한국운전면허증은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 소요기간: 2주

◦ 수수료: 55.70유로(면허증 발급비)

- 구비서류
 - 면허증 교환신청서(교통과에 비치)
 - 한국운전면허증 및 복사본 2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인증본 및 복사본 2부
 - 여권 및 여권 복사본 2부
 - 거주등록증(Meldezettel) 원본 및 복사본 2부
 - 오스트리아 체류증(비자) 원본 및 복사본 2부
 - 여권용 사진 1매
 - 건강진단서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한국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에는 필수적으로 주행시험을 치러야 한다.

- 소요기간: 8주
- 수수료: 55.70유로(면허증 발급비) + 32.70유로(주행시험비)
- 구비서류
 - 면허증 교환신청서(교통과에 비치)
 - 한국운전면허증 및 복사본 2부, 한국운전면허증 번역인증본 및 복사본 2부
 - 여권 및 여권 복사본 2부
 - 거주등록증(Meldezettel) 원본 및 복사본 2부
 - 오스트리아 체류증(비자) 원본 및 복사본 2부
 - 여권용 사진 1매
 - 건강진단서
 - 주행시험 신청서(교통과에 비치)
 - 자동차 등록증 및 복사본 2부
 - 자동차 검사증 및 복사본 2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주행시험 날짜까지는 약 8주가 소요된다. 주행시험에 합격한 후에 교통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는다(소요기간 1~2일).

- 운전면허증 교환장소: 연방경찰청 비엔나 교통국(Verkehrsamt Wien)
- 주소: Josef-Holteubek-Platz 1, A-1090 Wien
- 근무시간: 월~금, 8:00~12:30
- 전화: (01) 31345-0
- 비엔나 시를 제외한 각 주의 경찰청 교통국 주소는 하기 사이트를 참고
 - <https://www.help.gv.at/Portal.Node/hlpd/public/content/99/Seite.991305.html>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오스트리아에는 2020년(2021년 기준 최신자료) 은행, 보험 등을 포함해 약 800개의 금융기관이 영업 중이다. 인수합병, 대형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및 지점의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반적인 은행 이외에, 오스트리아 은행들은 아래의 세 가지 종류의 특색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 저당은행(Landeshypothekenbank): 주별로 설립 운영
- 신용금고(Sparkasse):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 운영
- 조합은행(Raiffeisenbank): 농업 부문 조합은행으로 한국의 농협과 유사한 형태

오스트리아에서 영업 중인 대표적인 은행들은 다음과 같다.

- Bank Austria: 자산 규모 면에서 오스트리아 최대의 은행으로, 과거에는 국영 은행이었으나 민영화 이후 2005년 이탈리아 금융 그룹인 UniCredit 그룹에 인수되었다. www.bankaustria.at
- Erste Bank: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신용금고(Sparkasse)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다.
<https://www.sparkasse.at/erstebank/privatkunden>
- Raiffeisenbank: 오스트리아 3위의 은행으로, 2000년대 후반부터 서비스 개선 및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www.raiffeisen.at
- BAWAG P.S.K.: 노동자 은행(BAWAG)과 우체국은행(P.S.K.)의 합병으로 탄생한 은행으로, 그 태생의 성격상 농촌 지역에 많은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www.bawagpsk.com

계좌 개설방법

오스트리아에 있는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여권(신분증), 거주등록증(Meldezettel) 등의 서류만 있으면 된다. 기업 계좌는 사업자 등록증 등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한다. 외국 회사의 오스트리아 현지 법인의 경우, 기업 계좌를 개설할 때 본국의 본사 관련 서류도 까다롭게 요구(요구 서류 목록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음)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개인 계좌의 경우, 은행수수료 납입 방법과 관련하여 몇 개의 서로 다른 상품이 존재하는데 보통 은행거래 건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 거래건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계좌수수료로 차감하는 방식 등이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 성향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된다.

오스트리아의 은행들은 통상적으로 분기별(3개월)로 은행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 종류 및 금액이 높은 편이다. 계좌 개설 시 체크카드(Bankomat 카드)를 신청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데(신용카드는 어느 정도의 거래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함), 오스트리아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Vienna(AISV)

도시명	비엔나
커리큘럼	미국식 학제를 따르고 있으며, 영어, 수학, 외국어, 음악, 체육, 사회, 과학, 기술, 연극, 미술 등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비	유치원~5학년: 18,408유로 6학년~8학년: 20,426유로 9학년~10학년: 21,245유로 11~12학년: 21,560유로
홈페이지	http://www.ais.at

◦ Vienna International School(VIS)

도시명	비엔나
-----	-----

커리큘럼	초등학교 과정(1학년~5학년) 및 중고등학교 과정(6학년~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스트리아의 대입 자격능력(Matura) 취득 기회도 주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11~12학년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역사 및 지리, 독일어, 영어, 수학, 과학(생물, 화학, 물리 중 택 1) 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만 한다.
학비	유치원~5학년: 19,232유로 6학년~12학년: 22,740유로
홈페이지	http://www.vis.ac.at

◦ Danube International School, Vienna(Danube)

도시명	비엔나
커리큘럼	초등학교 과정(1학년~5학년) 및 중고등학교 과정(6학년~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UN 등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자녀의 경우, 등록금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학비	유치원~1학년: 20,354유로 2학년~3학년: 20,670유로 4학년~5학년: 20,828유로 6학년~10학년: 24,202유로 11학년~12학년: 26,392유로
홈페이지	http://www.danubeschool.com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현지학교

◦ THERESIANISCHE AKADEMIE WIEN

도시명	비엔나
커리큘럼	유치원(Kindergarten, 6세 미만), 초등학교(Volksschule, 6세~9세), 중고등학교(Gymnasium, 10세~17세)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학비	초등학교: 6,670유로 중고등학교: 6,570유로(오스트리아 및 EU 시민), 8,590유로(기타 외국인)
홈페이지	https://www.theresianum.ac.at/
비고	테레지안 사립 학교 법인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Gymnasium)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유명한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명문 사학 재단이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마. 병원

◦ AKH(Allgemeines Krankenhaus der Stadt Wien)

도시명	비엔나
주소	Währinger Gürtel 18-20, 1090 Wien

전화번호	+43-1-40400-0
진료과목	종합병원

◦ Sozialmedizinisches Zentrum Ost - Donauspital

도시명	비엔나
주소	Langobardenstrasse 122, 1220 Wien
전화번호	+43-1-28802-0
진료과목	종합병원

◦ St. Anna Kinderspital

도시명	비엔나
주소	Kinderspitalgasse 6, 1090 Wien
전화번호	+43-1-40170-0
진료과목	소아과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도나우 젠트룸(Donau Zentrum)

도시명	비엔나
주소	Wagramer Str. 81, 1220 Wien
홈페이지	https://www.donauzentrum.at/
비고	수도 비엔나 북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에서 2번째로 큰 쇼핑 단지로서, 총 260개의 상점이 입점해 있으며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Donau Plex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총면적 130,000㎡.

◦ 디자이너 아울렛 판도르프(Designer Outlet Pandorf)

도시명	판도르프
주소	Designer-Outlet-Straße 1, 7111 Parndorf
홈페이지	https://www.mcarthurglen.com/outlets/de/at/designer-outlet-parndorf/
비고	명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울렛으로 이미 한국인 여행객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으며, 빈에서 1시간 만에 방문할 수 있는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www.parndorf-shuttlebus.at).

◦ 쇼핑 씨티 쿼트(SCS : SHOPPING CITY SÜD)

도시명	피젠도르프
주소	Vösendorfer Südring, 2334 Vösendorf
홈페이지	https://www.scs.at/
비고	수도 비엔나 남쪽 외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최대의 쇼핑 단지로서, 식당, 영화관 등을 포함해 총 330개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총면적 192,500㎡.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식품점

◦ 나쉬막 시장(Naschmarkt)

도시명	비엔나
주소	Naschmarkt, 1060 Wien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야채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다수의 식당들
비고	외국인들에게 관광 명소의 하나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전통 시장으로, 상품마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 바가지를 쓸 염려가 없다.

◦ 낙원(Nakwon)

도시명	비엔나
주소	6구: Zieglergasse 12, 1060 Wien, 2구: Rotensterngasse 31, 1020 Wien
취급 식료품	식생활용품(한국 식품, 아시아 식품)
비고	대형 한인 식품 매장으로 다양한 종류의 한국 식품(아시아 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수도 비엔나에 2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빌라(Billa)

도시명	오스트리아 전국
주소	매장 위치 검색: https://www.billa.at/Footer_Nav_Seiten/Filialsuche/dd_bi_channelpage.aspx
취급 식료품	식생활용품, 대형 마트
비고	Spar와 함께 오스트리아 선두를 다투는 식생활용품 매장 체인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쉽게 매장을 찾을 수 있다.

◦ 슈파(Spar)

도시명	오스트리아 전국
-----	----------

주소	매장 위치 검색: https://www.spar.at/standorte?gclid=CjwKCAiAodTfBRBEiwAa1hauqDdfTT1uJ7YOpHd7saM0lAcV8ZDY
취급 식료품	식생활용품, 대형 마트
비고	오스트리아 토종 브랜드로, Billa와 함께 오스트리아 선두를 다투는 식생활용품 매장 체인이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쉬센부른 골프장(Golf Club Wien-Süssenbrunn)

도시명	비엔나
주소	Weingartenallee 22, 1220 Wien
홈페이지	http://www.gcwien-sb.at
소개	비엔나에서 가장 가까운 지리적 잇점으로 인해, 현지 교민들이 즐겨 찾는 골프장이다.

○ 다뉴브 피트니스 센터(Clun Danube)

도시명	비엔나
주소	피트니스 센터 위치 검색: https://www.clubdanube.at/standorte
홈페이지	https://www.clubdanube.at/
소개	센터에 따라 피트니스,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을 제공한다.

〈자료원 : KOTRA 빈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신년(Neujahr)	2022-01-01	새해 첫 날을 기념하는 날
삼성왕절(Heilige Drei Konige)	2022-01-06	동방박사 3인이 예수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아기예수를 찾아온 날
부활절(Ostermontag)	2022-04-18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부활한 때를 기념하는 축일
노동절(Staatsfeiertag)	2022-05-01	세계 노동절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2022-05-26	예수가 부활 후 승천한 날
성령강림절(Pfingstmontag)	2022-06-06	오순절 예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재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
성체축일(Fronleichnam)	2022-06-16	성체에 대한 신앙심을 고백하는 축일. 삼위일체 대축일 후의 목요일

성모승천일(Maria Himmelfahrt)	2022-08-15	사람으로 태어나 살았던 마리아가 죽은 뒤 몸이 썩어 사라지지 않고 부활해 하늘로 승천한 날
중립국선언일(Nationalfeiertag)	2022-10-26	오스트리아가 영세중립국임을 선포한 날
성자의날(Allerheiligen)	2022-11-01	모든 기독교 성자들을 기념하는 날
성모수태일(Maria Empfaengnis)	2022-12-08	성모 마리아가 대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날
크리스마스(Christtag)	2022-12-25	예수탄생일, 크리스마스
성슈테판의날(Stephanitag)	2022-12-26	슈테판 성자 기념일

<자료원 : <https://www.advantageaustria.org/kr/zentral/business-guide/reisen-nach-oesterreich/gut-zu-wissen/feiertage-und-ferientermine/feiertage-und-ferientermine.ko.html>>

10. KOTRA 무역관 안내

◦ 빈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KOTRA Wien&Commercial Section of the Embassy of the Rep. of Korea, Mariahilferstrasse 77-79/1/3(Mahu77, 3rd Fl.), 1060 Wien
- 전화번호: +43-1-586 3876
- 이메일: info@kotra.at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vienna/KTMIUI010M.html>

공항-무역관 이동

- 빈 국제공항(Vienna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찾아오시는 경우,
 - 셔틀버스
Westbahnhof(서부역)행 셔틀버스를 타고(약 40분 소요) 서부역 하차. 서부역에서 지하철 3호선 U3 Simmering 방향으로 가다가, 두 번째 Neubaugasse 역에서 하차. 지상으로 나오시면 Mahu77 건물이 Eurospar마트 옆에 보인다.
 - 택시
Mariahilferstrasse 77(마리아힐퍼슈트라세 77)이라고 말하면 Generali Center까지 바로 갈 수 있다(승차 공유 서비스 이용 : Uber, Bolt 등 해당 앱을 설치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에 무역관에 도착할 수 있다. 예) 택시 : 35~40유로, Uber/Bolt : 28~33유로).
 - 기타
S-Bahn(교외선 기차. S7 등 여러 노선이 시내 중심인 Wien Mitte, Wien Hauptbahnhof까지 운행되며 이곳에서 지하철 3호선 U3로 환승 가능), CAT(시내 중심 Wien Mitte 역까지 노스톱 운행하는 익스프레스 공항철도. 코로나 이후로는 운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 있으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복잡하므로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 건물 도착 후
 - Mahu77 건물 안으로 들어온 후(Front Desk에 별도의 등록 절차 필요 없음), 곧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오면 우측에 KOTRA 간판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